

동아리, 개별 난방 사용 지양해야

잔류 신청서 홍보, 절차 간략화 필요해

학칙에는 우리학교 학내에 개별 난방 기구를 두면 안 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난방 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자칫 잘못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4년 전, 진리관에서 한 학생이 난방 기구를 사용하다가, 난방 기구 관리를 잘못해 불이 난 적이 있었다. 그 사건은 학생들의 난방 기구 사용에 대한 학교의 우려를 증폭시켰고, 학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학내 난방 기구 사용 금지 학칙을 강화시켰다. 난방 기구의 사용은 화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전기 과부하를 불러 일으킨다. 몇 개월 전 동아리동 전체의 전력 공급이 차단된 사건은 동아리에서 난방 기구를 이용해 전기 과부하가 일어나 발생한 것이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동아리 회원들이 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동아리 회원들이 동아리 공연 준비 등을 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동아리방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 들어온 동아리 회원들을 비롯한 몇몇 학생들이, 학교에 잔류 신청을 하면 난방을 해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회원들은 늦은 시간 동아리방에 남아있던 잔류 신청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도 하다. 늦게까지 동아리방에 남아있던 학생(회화과 1)학우는 잔류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질문에 "학교에서 잔류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들은 적이 없었고, 잔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밤새도록 특별한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교에서는 잔류 신청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아, 동아리 회원들은 잔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개별 난방을 사용하고 있다. 김대식(학생지원팀) 조교는 "냉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앙에서 냉난방을 하기 시작한다. 또한 동아리 회원들이 공연 준비 등을 목적으로 동아리방에서 늦게까지 잔류를 희망하는 경우, 잔류 서류만 작성하면 난방을 지원해준다"고 말했다. 이에 김세미(영어영문 3) 학우는 "지난번에 동아리방에서 냉방을 틀었는데, 난방이 안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대식 조교는 "중앙에서 냉난방을 가동해도, 간혹 시스템 오작동이 발생하면서 냉난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부분은 학생들의 이해해줄기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잔류 신청서를 작성하면 냉난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도 잔류 시마다 신청서를 일일이 쓰는 동아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잔류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담당 교수의 승인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잔류 신청서 작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담당 교수의 승인을 받기 위해 찾아가도, 근무 시간이 지나거나 개인 사정으로 담당 교수가 자리를 비우면 사인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축제나 공모전을 준비하는 경우 매번 담당교수에게 부탁하는 일은 담당 교수에게나 동아리 회원들에게도 불편한 일이다. 따라서 난방 기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측에서 먼저 잔류 신청서에 대한 홍보와 잔류 신청 절차의 간략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동아리 회원들은 불편하더라도 잔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동아리방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박형신 기자 prstan@hansung.ac.kr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 앞에서 애도를 표하고 있다.

불만으로 채운 졸업앨범

지난 5월 25일~28일 4학년 4학번 학생들의 졸업앨범 촬영이 있었다. 그러나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업위)의 인일한 대처로 인해 이번 촬영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먼저 졸업앨범촬영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이 없었다. 작년에는 촬영 업체가 미리 만든 샘플을 PPT와 함께 보여주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후 학생들에게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점수표를 나눠주었다. 그리고 졸업준비위원회는 사진 몇 장을 뽑아 사진을 찍고 이 샘플사진과 점수표를 합산해 촬영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품평회도 없이 졸업위의 독단으로 업체 선정이 이루어졌다. 졸업앨범 촬영 기간도 촬영인원에 비해 너무 짧고 촉박했다. 원래 졸업앨범 촬영 날짜는 5월 11일~13일 3일 동안 실시될 예정이었다. 3일간 8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촬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문의를 했으나, 졸업위는 이를 수 없다는 반응만 보였다. 그러나 날씨문제로 인해 25일 로

촬영 후, 졸업위는 교내 홈페이지에 있는 '낙산의 메아리' (이하 낙메)에 관련 공지글을 올리고 학생들에게 안내문자를 보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청한 행정학과 4학년 학생은 "날씨문제로 날씨가 미워진 것은 좋은 일이었으나 그로 인해 메이크업 업체에 예약전화를 다시 해야 했다. 미리 공지를 하고 날짜를 잡았으면 좋았을 것이다"로 불만을 토로했다. 또 사진 촬영 시간도 문제가 있었다. 적게는 18명에서 많게는 60명에 달하는 인원이 2시간 내에 모든 사진촬영을 마쳐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앨범 촬영을 도와주는 도우미나 진행요원도 없어서 오후 1시에 시작한 촬영이 6시에 끝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익명을 요청한 경영학부 4학년 학생은 "4학년이라 수업이 별로 없긴 하지만, 자칫 촬영 시간이 더 늦어졌다면 수업도 못 들어가고 촬영을 해야 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이하나 기자 babychou@hansung.ac.kr

'한성 UP GRADE'의 요구안 제출

'25대 총학생회 '한성 UP GRADE'는 1학기 학생요구안을 학교 측에 제출했다. 총학생회가 제출한 요구안에는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 단과대 학생회가 학교에 요구하는 내용이 적혀있다. 총학생회의 요청 내용에는 학생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등록금 부담 문제, 취업 문제, 장학금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요구안에 대한 답변은 요구안을 제출한 후 한 달 뒤에 받았다. 학생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한 문제는 등록금 부담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정주택 총장은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등록금 분할 납부 횟수를 늘려달라는 요청에는 현재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으며, 등록금의 신용카드 결제 요청은 수수료와 이자율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학생들의 강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강의 평가 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사항은, 총장이 강의평가 공개를 선인함으로써 해결되었다. 강의 평가 공개는 다음 학기부터 시

행된다. 그러나 총장은 학기 초과자의 등록금 완화와 저립금을 사용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인문대에서 요구한 우편권 학생회실과 실습실 문 교체, 공과대에서 요구한 공학관 내의 휴먼 공간 설치, 무용학과와 실기실 환풍 시설 설치, 공학관과 지선관에 추가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의생활학부는 이문순으로 나누는 전공 선택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학교 측에서는 교수들의 반대 등의 문제로 답해주었다. 취업과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답변을 받은 조성기(법학 4) 총학생회장은 "작년보다 답변에서 개선의지가 많이 엿보인다"며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답해주었다. 취업과 맞닿아 있는 졸업 유예제도문제 등은 학교 측에서 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총학생회에서는 다시 자료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진미라 기자 tvxq@hansung.ac.kr

영어커뮤니케이션,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학교 필수교양 중 하나인 영어커뮤니케이션의 수업방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수업의 분업화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시간배분의 문제, 수준별 수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이 그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학생은 "대화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원어민교수의 수업이 있다는 것 자체는 좋다. 하지만 같은 교재를 사용하는 것 외에 두 개의 수업이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다. 또 한국인 교수의 수업이 주1회라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수요일 같은 경우는 50분 수업을 듣기 위해 왕복 3시간의 통학거리를 감수해야만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의 프로그램은 2006학년도 1학기에 전면적으로 개편되었고, 2009년 1학기부터는 원어민 교수와 한국인 교수의 수업의 연관 관계가 희미해지게 되었다.



운영하는 '분업화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래 우리학교 분업화 수업의 취지는, 배운 영어를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원어민 교수의 장점과 보다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한 한국인 교수의 장점을 모두 살려 보자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각 수업의 장점을 살리려다 보니 정작 원어민 교수와 한국인 교수의 수업의 연관 관계가 희미해지게 되었다.

실제로 영어커뮤니케이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 교수는 "취지는 좋지만 효율적인 교수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어민 교수와 한국인 교수가 다른 과목으로 독립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 것이다"며 의견을 밝혔다. 수업시간의 분할 역시 두 수업의 연관 관계가 멀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현재 영어커뮤니케이션 수업시수는 주 3시간인데 2일로 나누어 수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아(언어교육원) 교수는 "개편 전에는 3시간 연강으로 수업을 진행했으나 1학년 학생들이 수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어휘란 자주 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 보다는 나누어서 두 번 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된다. 따라서 학교 측에 강력히 요구해 두 개로 분할한 것이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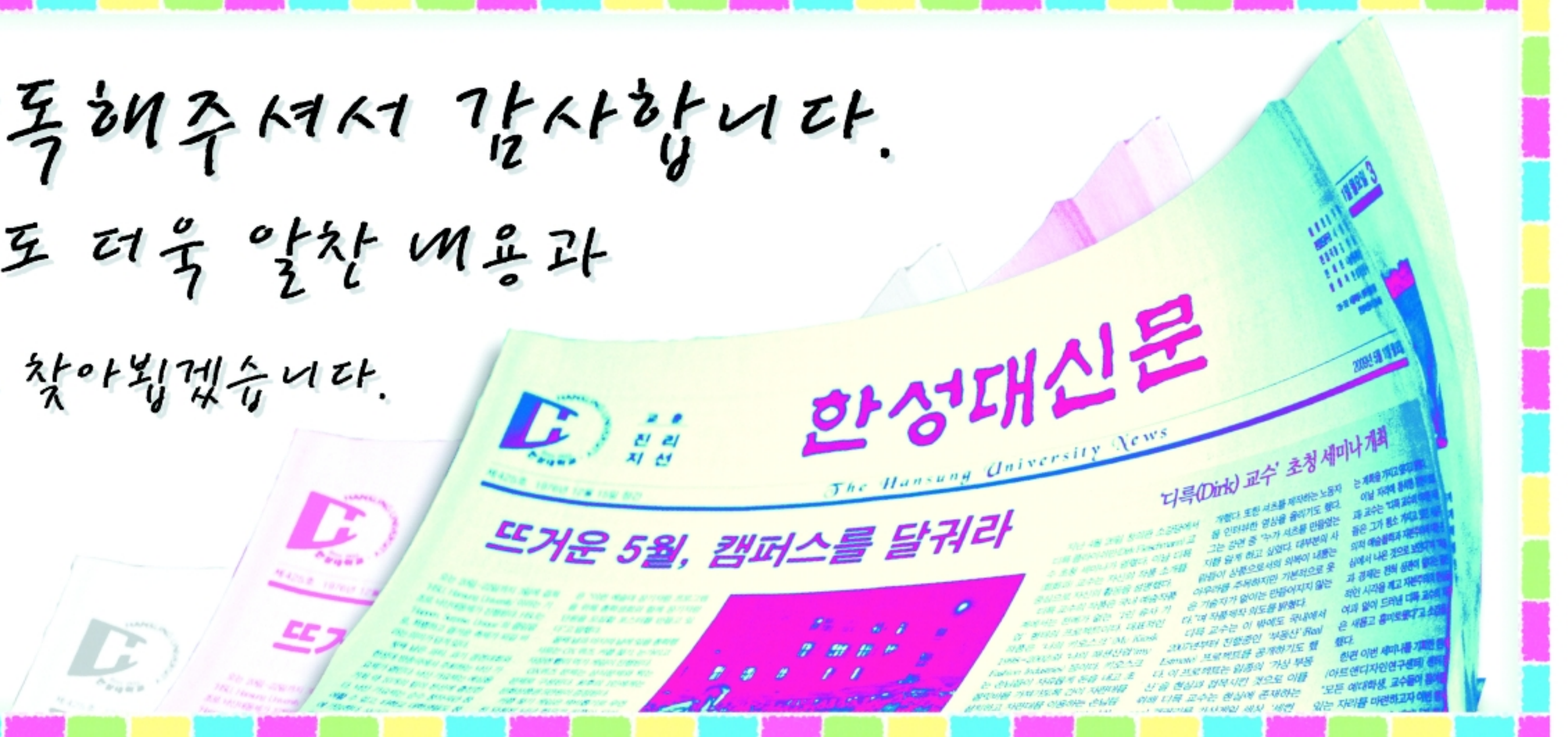
한국어 교수의 수업시간이 주 1회밖에 되지 않는데 대해서는 "첫 학기라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이다. 교재와 수업시간의 배분 등에 관해서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영어커뮤니케이션 수업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네 단계로 나누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기 초에 치른 지필고사가 학생들의 영어수준을 판단하기에 적절한 방법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김영아 교수는 "보통 독해를 잘 하는 학생들이 조금만 훈련을 하면 듣기와 말하기도 잘 하는 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스피킹 테스트와 리스닝 테스트 등을 배치고사에 들어올 방법을 모색 중이다"고 밝혔다. 이성이 기자 sangmi@hansung.ac.kr

그동안 애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에도 더욱 알찬 내용과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8.31 Coming Soon...



지켜지지 않는 강의시간

보강 없는 휴강으로 학생들 불만

15주의 일정이 후반부에 다 드는 지금 학생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휴강 공지와 빈번한 수업시간 단축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 우리학교 대부분의 전공수업은 3시간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3시간 짜리 전공 수업일 경우 대부분의 교수들은 하루에 3시간씩 수업을 연속으로 한다. 혹은 2일에 걸쳐 2시간, 1시간씩 나누어 수업을 하기도 한다.

학사지원팀 측은 "원래 우리학교 전공수업은 3시간 연속 강의를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3시간 연속으로 강의하면 집중도가 떨어진다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학사지원팀 측은 "이러한 학생들의 불만은 반영해 가급적 2시간, 1시간 나눠서 하는 강의 시간표를 만들려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강의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몇몇 외대강사가 다른 지역에 강의를 하러 간다는 이유로 수업 시간을 일방적으로 조정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로 인해 보강 없는 휴강을 하기 때문이다. 인문대 한국어문학부에서는 전공수업을 이틀에 걸쳐 진행할 경우

3시간 전공수업을 2시간만 하고 끝냈다. 하지만 종종 전공 3시간 수업을 다 할때도 있어 일관성 없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명을 요청한 한국어문학부 5학년 학생은 "외대 강사가 화요일에 2시간, 수요일에 1시간 수업하는 전공수업이 있었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 외대강사는 화요일에만 수업하러 나오고 나머지 요일에는 대부분 수업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8년도 1학기에 개설된 공대의 교양 공학윤리 수업에서 교수가 개인적인 업무로 인해 종종 휴강을 했지만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휴강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대 정보통신과의 한 K학우는 "1. 교수는 자신의 업무로 전공수업을 휴강했다"며 "공식적인 업무가 아닌 개인적 업무로 인한 휴강인데도 불구하고 학기동안 휴강인대도 불구하고 학기동안 휴강이 계속 됐다"고 말했다. 학내에는 이 같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우들은 이러한 문제로 휴강을 많이 하면 학우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수업을 하지 못한 지난 2학기 있었던 공대의 과학 기술사 교양 수업에서는 강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정되어 있던 시험 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교수가 다른 업무로 인해 시험시간을 잊어버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명을 요청한 공대의 한 L학우는 "시험 보기 직전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수가 우리들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않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수나 강사들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업 시간을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K학우는 "수업은 학우들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비싼 등록금을 내고 수업을 받는 것만큼 교수와 강사들은 성의 없는 수업이 아닌 질이 높은 수업을 학우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학기동안 휴강이 계속 됐다. 휴강은 있을 수 있지만, 휴강된 강목에 대한 보강은 필요하다. 하지만 정작 보강주요 정해진 16차에는 보강이 이루어지지 과목이 많지 않다.

김영희 기자 kmh77@hansung.ac.kr

우리는 진정한 저자를 만나고 싶다

학우들 '저자와의 만남' 후 많은 아쉬움 나타내

지난 5월 14일 학술정보관이 주최하는 '저자와의 만남' 행사가 미래관 DLC에서 열렸다. 올해의 저자는 비유학과에 채욱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익훈 여학원의 인스타그램강사가 된 박정원 영어강사였다. 이 행사에는 빈 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으나, 관람 후 학우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저자와의 만남' 이후 학술정보관은 지난 21일~29일 9일간 이번 행사의 만족도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의 결과 전체 학생 중 저자 선정에 불만을 드러낸 학우는 28.9%였고, 강연 내용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학우는 25.2%였다. 즉, 5명의 학우 중 1명의 학우가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설문조사 내용 중 기타 의견을 살펴보면 기대 이상의 강의였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판의 평을 올렸다. '아무리 영어가 대세라지만 저자와의 만남에 영어강사만 초청해도 되는 것이냐'나 '명색이 지식의 상어탕이라는 대학에서 그가 한 불쾌한 발언에 실망했다', '형식적인 저자와의 만남보다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저자를 선정했으면 한다', '스펙을 쌓기 위한 책의 저자보다는 자신이 겪은 남다른



도전을 저술한 책의 저자를 만나보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강연을 참관한 김현준(지정 1) 학우는 '저자와의 만남이라고 해서 나를 기대를 하고 왔는데, 마치 학원 교지 학원이 아니다. 특히 책이나 자신의 강의를 광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의견을 나타냈다.

또 김서령(지정 1) 학우는 "영어를 하지 못해도 꿈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영어를 하지 못하면 꿈도 꾸지 못하는 말을 듣고 당혹스러웠다. 영어만을 강조하는 조연에 실망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강연에 대해서 이명을 요청한 경영학부의 3학년 학우는 "오로지 영어만을 강조했을 뿐 남는 것이 없었다"며 "스티븐 잡스나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영문사처럼 인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하나 기자 babychou@hansung.ac.kr

간주린 소식

창의적 인재 평가의 장 열려

지난 21일 오후 2시~4시 30분 까지 미래관 DLC에서 제 3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개최되었다. 김인경(사고와 표현 위원회)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논리적인 사고력을 확장하고, 문서작성과 발표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실현 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아이디어 기획', '비주류 문화의 상업적 성공과 대중문화 흐름의 변화에 대한 견해', '실현 가능한 자살 예방 대책'이라는 3가지 주제를 제시했다. 김슬기(한국어문 4) 학우는 "이번 대회를 함께 준비한 다른 학우들을 보면서 좋은 자극들을 많이 받았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열정과 활력이 공존하는 공대·사대 체전

지난 11일~15일에 공대체전과 사대체전이 열렸다. 이번 체전은 농구, 축구, 축구, 발아구, 피구, 계주, 줄다리기 등 다양한 종목으로 진행되었다. 공과대의 농구는 산업시스템공학과, 계주는 컴퓨터공학과, 발아구는 정보시스템공학과, 피구는 정보시스템공학과, 줄다리기는 정보통신공학과가 우승했다. 사과대의 농구와 발아구는 행정학과가, 축구와 피구는 경영학과, 계주는 부통신학과가 우승했다. 공과대는 정보통신공학과가 종합 우승했고, 사과대의 종합 우승은 경영학과가 차지했다.

나를 연설하는 영어스피치 대회

지난 22일, 미래관 지하 DLC에서 제 4회 한성 교내 영어스피치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영자신문사가 주최하고, Bianca Turalia교수와 Chante Stoeckley교수가 심사를 맡았다.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A군과 B군으로 나뉘어 경합을 치렀다. A군의 최우수상은 방재식(경영 4) 학우가, 우수상은 김경혜(메디 3) 학우가 받았다. 방재식 학우는 'Walt Disney World'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김경혜 학우는 'The true way for a successful life'를 주제로 연설했다.

B군의 최우수상은 김시내(영문 4) 학우가, 우수상은 심성보(경영 3) 학우가 차지했다. 김시내 학우는 'Merciful death for comfortable death'를, 심성보 학우는 'Objective or Essay Tests'를 주제로 연설했다.

제12회 남당장학금 수여식 개최

지난 5월 11일 이석주(한국어문학부) 교수가 만든 남당장학금 수여식이 미래관 DLC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정진아(한국어문 3)학우가 남당장학금을 수여받았다. 교의 장학금인 남당장학금은 한국어문학부 교수들의 추천을 받은 학우 1명이 받는다. 이석주 교수는 정진아 학우에게 표창, 꽃다발과 함께 장학금을 전달하며 "정진아 학우가 앞으로 용기를 잃지 말고 즐겁게 대학생활을 해, 미래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여식이 끝난 후에는 한국어문학부 대학원 원우들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 한국어문학부 교수들에게 카네이션과 작은 선물을 증정했다.

동정란

김창홍(한국어문학부) 교수 김 교수는 2009년 5월 29일 자료 도서관 제이앤씨에서 '인문학 옛길을 따라'라는 저서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는 당대종과 선택여왕의 갈등, 이백과 두보의 역사적 만남, 소동파와 조건의 문인 등 다양한 인문학적 화제를 펼치고 있다.

서영윤(영어영문학부) 교수 서 교수는 5월 30일 성균관대학교 다산관에서 '근대 영미문화와 Nation & Nationalism'이란 주제로 근대영미소설학회와 18세기 영문학회가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여했다. 서 교수는 '파워의 '신병모집관'을 통해 본 근대국가 형성기 영국의 사회상'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윤석효(역사문화학부) 교수 6월 3일 오후 3시 DLC에서 훈정 윤석효 교수 정년퇴임 기념 강연 및 논문 봉정식이 있을 예정이다. 제1부는 기념강연은 '원효, 의상의 사상과 일연의 삶'이란 연제로 진행된다. 4시 20분~5시까지는 기념논문 봉정식이 열린다.

조지연(엔터테인먼트) 교수 조 교수는 5월 19일 발표된 한국토지공사 주최 '우리 동네-아름다운 집' 공모전에 자신이 설계한 주택작품 '남곡'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건강관리실, 적색 신호등 켜지다

야간 학생은 이용하기 힘들어

만약 건강관리실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교내 학우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정말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5월 한 학우가 지방으로 교내에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6시 10분경, 쓰러진 학우의 친구가 놀라 건강관리실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학우를 옮기는 것과 구급처를 부르는 등의 대처가 늦어진 것이다. 그 시간은 양호교사가 이미 퇴근한 시간 이었고 건강관리실에는 근로학생 한 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에 대해 권후관(총무인사팀) 팀원은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전화로 근로학생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달하는데, 당시 근로학생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건강관리실은 9시~5시까지 근무하는 담당 선생님 1명과 근로학생 3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4월 한

달간 건강관리실 이용 현황을 보면 오후 1시~5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야간 6시~9시, 오전 9시~12시 순이다. 야간 시간대는 이용자 수가 많은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치안상의 이유로 남자 근로학생 한 명만이 상주하고 있다. 야간 수업을 10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는 우리학교의 경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권후관 팀원은 "학부생뿐 아니라 사회교육원 학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용건수가 날로 늘고 있다. 4월 한 달 이용건수는 총 1,825건에 달한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용자 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이용자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년간은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건강관리실은 양호교사의 책임과 관리 하에 근로학생이 약을 전달하고 간단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

상태가 특별히 좋지 않은 학생이 온 경우는 양호교사가 따로 상담을 하고 처방을 내린다. 부재중인 경우에는 양호교사가 전화로 처방방법을 알려 주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학내문제에 대해 안홍열(총무인사팀)팀원은 "현재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며, 야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알아보고 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실에 아무도 없을 때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권후관 팀원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5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119나 1339 등 응급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말했다. 그 외에 "연락을 받은 근로학생은 건강관리실에 문패를 걸어놓고 즉시 나가 보아야 할 것이며, 평소엔 CPL 응급심폐술을 익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우리들의 매너로 충전되는 배터리

교내에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핸드폰 충전기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다. 핸드폰 충전기가 설치된 건물은 미래관, 탐구관 지하, 진리관, 지식관, 공학관 1층과 학생식당, 학술정보관이다. 핸드폰 충전 기기의 종류로는 '충전 119'와 '충전 거처'가 있다.

충전 119 한 대에는 5개의 충전함이 있는데, 잭이 함 속에 들어있고 잠금 기능이 가지고 있다. 반면에 충전 거처에는 충전 잭이 노출되어 있어, 보안이 비교적 철저하지 못하다.

보통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남짓이다. 충전 119는 충전이 다 되어도 맡긴 사람이 찾아가지 않으면, 다른 학우들은 기기를 이용할 수 없다. 학우들은 어쩔 수 없이 덜 안전한 충전 거처대를 이용하게 된다. 충전 거처대의 경우에는, 다음 이용자가 충전이 완료된 배터리를 빼놓고, 자신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 이 때 주인 없는 배터리는 바닥에 떨어져 분실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한다. 핸드폰에 비해 배터리는 식별이 쉽지 않고, 주인을 찾아가기도 어려워 분실사고가 잦다.

두 충전기는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해 많은 학생들이 찾는다. 또한 충전기가 휴게실과 출입이 잦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충전 중인 핸드폰과

배터리가 분실될 위험이 크다.

이에 대해 서상원(산공 3)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 위원장은 "학복위에서 충전 중인 핸드폰과 배터리의 분실문제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분실물을 맡겨 놓은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주인을 찾아주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현재 교내 충전기의 점검 및 수리는 전문 업체에 의해 일주일에 두 번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업이 모두 끝난 다음이나, 주말까지 방치되고 있는 핸드폰과 배터리에 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서상원 학복위 위원장은 "학복위에 직접 오셔서 배터리를 맡기시면 충전 해드리고 있다"며 "학우들의 불편을 거둬드리는 것이 우리의 큰일이다. 충전기에 불편이 있을 때,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충전 중인 배터리 주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것이 도난 및 분실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 충전이 끝난 배터리는 즉각 찾아가야 모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이준재 기자 dogilive@hansung.ac.kr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말처럼
더운 날씨에 시험공부가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노력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한성대신문사가 여러분의 땀방울을 응원합니다!



대학, 지역 사회와 함께가요

지역 사회 환원은 대학에 이득을 안겨줘

사회 환원의 바람이 기업에 이어 대학에도 불고 있다. 대학교들이 점차 사회 환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대학교는 왜 사회 공헌을 해야 할까?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에서 일하는 장효천 박사는 "대학교는 일반 기업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공인된 법인으로, 지역 사회에 일정 부분 공헌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며 대학교가 지역 사회에 공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장효천 박사는 "또한 대학교의 교육 목표는 미래 인재양성이다. 그런데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사회 발전을 도와준다는 이야기로 결국 사회 환원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학교가 할 수 있는 사회 환원은 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으로부터 시작한다"며 "대학교의 교육 인프라를 통해 주변 지역에 있는 초·중·고의 학생을 교육시키는 일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런 방법으로 사회 환원을 하고 있는 대학교에는 신라대학교가 있다. 신라대학교는 토요일 대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19개 중학교에서 온 300여명 학생에게 대학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토요일 대학 프로그램은 매주 둘째, 넷

째 주 토요일에 중학생들을 대학으로 초청하거나 대학교에서 중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육하고 있다.

사회 환원을 하는 대학교는 신라대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 환원을 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장효천 박사는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에는 해당 지역의 결손 가정 등 불우 이웃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해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런 그의 말처럼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학생과 교수가 직접 나선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한국국제대학교이다. 한국국제대학교의 실내건축학과 교수와 학생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학과비와 업체의 후원으로 공사비와 자재를 마련해, 직접 집을 수리하는 등 학생과 교수가 주축이 되어 불우 이웃을 도와주고 있다.

그는 대학교의 또 다른 지역 사회 환원에 대해 "대학교의 지역 사회 공헌 방법의 일환으로 지역에 있는 기업과 연계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그 기업에 맞는 인재를 배출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남대학교는 대기업과 연계해 중소기업인 근로자에게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권역별 직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됐다. 권역별 직업중심 대학으로

선정된 영남대는 이후 6년간 총 63억 원 상당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하니, 학생들의 취업 도움과 국가의 지원,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여대의 경우 지난 5월 23일에 노원구 중랑천 신책로에서 노원구 도서관과 함께 '장애인 책사랑 나눔 걷기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서울여대의 '2009 아름다운 캠페인' 운동의 하나로 참가자 2000여명이 걷기 대회를 하며, 원주자의 이름으로 책을 기증하는 지역 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대학 캠퍼스가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방식에는 캠퍼스의 답을 얻는 방법이 있다. 세종대, 서울여자간호대학, 성서대학교 등의 학교에서는 대학의 답장을 허물고, 답장 대신 나무를 심어 일반 사람들도 쉽게 대학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캠퍼스를 조성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교에서는 지역 사회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신라대학교 진행한 프로그램과 우리대학교가 진행하는 유사한 활동에는 한성여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김연태(교육개발지원팀) 팀원은 "성북구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멘토링에 협력해 현재 우리학교에는 초등학교 멘토 25명, 중학교 멘토 30명이 있어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이외에도 우리학교에서는 예전부터 진행한 도시락 전달 프로그램이 있다. 현재 우리학교에서는 지역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점심에 도시락을 전달한다.

이 밖에도 성북구 청소 프로그램, 해외 봉사 프로그램 등과 방중에 열리는 컴퓨터 공개 무료 강좌, 사회교육원에서 진행되는 무료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지역사회 환원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효정 박사는 "외국 대학교의 경우 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 및 지역 사회 복지의 기반이 되며, 도시와 함께 발전의 길을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에 대학교가 존재해도 대학교와 연계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대학교는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증대시켜, 서로에게 득이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대학교와 지역 사회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형신 기자 phstlan@hansung.ac.kr



지구와 함께 사는 건강한 습관

백해정 간사(환경운동연합 소통협력국 소화불량에 걸린 지구)

'쓰레기'란 사전적인 의미로 '못쓰게 되어 내버려진 물건들'인데, 이 단어에는 처음부터 인간중심적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 습관 속에서 불필요한 물건이란 없기 때문이다. 먹고 남은 음식물은 가족의 먹이로, 분뇨는 논밭을 기름지게 하는 거름으로, 그나마 나오는 쓰레기를 중 대다수는 난방 및 취사연료로 사용되었다. '불필요한 물건' 일명 '쓰레기'는 불과 100여년 사이에 인간계에서 생겨난 자연과 괴적인 생활습관에서 기인한 것이다.

지구를 위협하는 꾸준한 생활 습관 기반 욕구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는 '꾸준한 생활 습관'은 먼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지구를 위협한다. 실제로 도시 생활 폐기물의 23.4%가 음식물쓰레기로서 연간 11,300톤에 달한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을 70% 이상 함유하고 있기 때문

에 매립장에서 파리, 모기 등 해충에 의한 질병 감염 및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는 고체성분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다. 흔히 음식 곡물, 음료수 등은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게 되는데 그것 역시 자연계에서 정화되려면 엄청난 물이 소모된다.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건강한 습관

현재와 같은 생활 방식을 계속 한다면 지구는 2080년까지 밖에 살아남지 못한다고 한다. 계속 살아가려면 새로운 습관이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습관, 즉 친환경적인 생활을 이야기 하면서 사람들은 흔히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구와 함께 사는 생활방식이 정말 불편할까? 일회용 컵 대신에 머그컵을 사용하는 것, 비닐봉투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 종이 청구서 대신에 이메일 청구서를 사용하는 것, 화학조미료 대신 유기농 먹거리를 구입하는 것. 그것이 과연 정말 불편한 사실일까?

그것은 불편하지 않다.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실제로 습관을 바꾸려면 일주일 안에 익숙해질 만큼 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구를 살리는 새로운 습관]

● 첫 번째, 적게 산다.

도시 사람들의 기존 생활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평균 1KG이라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만들어 낸다.

● 두 번째, 잘 버린다.

우리의 생활 패턴이 자연과 괴적에서 자연친화적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적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쓰레기가 있다. 독일과 같은 환경선진국의 경우 생활쓰레기조차 30여 개의 분리수거기준에 의하여 철저히 분리수거한다.

● 세 번째, 다시 쓴다.

일반적으로 재활용하는 물품 이외에 음식물쓰레기 지렁이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다. 지렁이는 자연이 낳은 가장 뛰어난 재활용업자로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반복되는 캠퍼스 생활 지겹지 않으세요?

해비타트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서아영 학우를 만나

내 집 마련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망 중 하나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일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저소득층에게 집을 지어 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주는 단체가 있다. 바로 국제봉사단체 '해비타트'이다. 직접 집을 지어준다는 이야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서아영(서울여대 07) 씨는 해비타트의 매력에 빠져 어느새 해비타트 동아리 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서아영 회장은 "해비타트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설계에서부터 건물 시공까지 하는 단체이다"며 해비타트를 소개했다.

해비타트는 대학생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 서울여대, 아주대, 한동대 등에서는 해비타트 동아리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해비타트가 무주택 가정을 선정하고, 건축 계획을 짜면 해비타트 동아리는 건축현장 참여, 기금모금 행사 등을 통해 해비타트의 활동을 지원한다.

서아영 회장은 "해비타트 동아리의 활동으로는 주말 건축, 한국빈곤건축(이하 KBB)이 대표적이다"며 하는 일에 대해 설명했다.

해비타트의 가장 큰 행사인 KBB의 경우 한국 해비타트의 인지도 향상과 건축지원봉사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된 건축 지원 봉사 이벤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다수의 인원을 투입해, 건물 완성까지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그가 있는 서울여대의 경우, 동아리 회원 약 30명이 금요일에 주말건축 봉

사를 하기 위해 모인다. 그는 "해비타트가 정한 여러 지역 중에서 한 곳을 골라, 집 고치기 및 집짓기 활동을 한다"며 "또한 방학 중에는 해비타트가 주최하는 KBB에서, 30~40명의 학생들과 4박 5일 동안 봉사활동에 참여한 다"고 말했다.

KBB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함께 작업을 하는 해비타트의 가장 큰 행사이다. 때문에 KBB가 열리면 해비타트의 사람뿐만 아니라, 해비타트 동아리 회원 그리고 일반 자원 봉사자들까지 다 함께 모여, 서로 도우면서 집을 짓는다.

서아영 회장은 "비록 KBB 활동 기간에 모든 집을 완성시키는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 완성될 집에 살게 될 입주자 가정이 찾아오는 시간이 있다. 현장에 찾아온 입주자 가정이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해비타트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그 때를 추억했다.

해비타트 동아리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서울여대 축제에서는 학생들이 해비타트에 좀 더 쉽게 접근하는 기회를 갖고자, 못 박기 게임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건축 활동이 뜸한 겨울에는 고아원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해비타트 활동은 그에게 많은 경험과 이득을 주었다. 서아영 회장은 "평소의 해비타트 활동은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고를 심어주었다."

그리고 수많은 해비타트 봉사자들의 공동 작업은 다양한 사람들과 인맥을 쌓는 기회가 되었다. "해비타트 통해 얻은 것을 말했다."

또한 그는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자신의 시각을 보다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단순히 집과 학교를 왔다갔다하는 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학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NGO단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한다"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해보길 권했다.

백형신 기자 phstlan@hansung.ac.kr

낙산만평

류현수(애니제품 2)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멘토 & 멘티 모집

◆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이란?

본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멘티)과 멘토인 선형학생(본교 재학생)가 매주 2회(2시간 이상) 이상 만나 학교생활 안내 및 학습활동을 돕는 교육지원프로그램

◆ 참가자격

멘토	멘티
평점이 3.0 이상인 본교 재학생	
외국인 유학생과 같은 학과(전공) 및 부의 재학생	본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같은 수업을 수강하는 본교 재학생	외국인
단, 2009년 2월 졸업예정자 제외	

◆ 신청 기간

▷ 1차 신청 기간 : 2009. 6. 1(월) ~ 6. 12(금)

▷ 2차 신청 기간 : 2009. 8. 31(월) ~ 9. 4(금)
(단,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중 학교홈페이지 한성공지에서 멘토&멘티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우편관 3층 교육개발지원팀에 제출

▷ 신청기간 중 교수학습지원 홈페이지 "자료실 16번"에서 멘토&멘티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관 3층 교육개발지원팀에 제출
(www.hansung.ac.kr/jsp/cmtly/cmtly_index.jsp?p_CLUBCODE=c11)

◆ 신청서 유의사항

▷ 멘토링 활동 가능한 요일, 시간은 2차 신청기간에 교육개발 지원팀 방문하여 작성바람.

▷ 멘티는 도움 받고자 하는 과목명은 2차 신청기간에 교육개발 지원팀 방문하여 작성바람.

◆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설명회 개최

♣ 1차 일시 : 2009. 6. 1(월), 16:00

♣ 장 소 : ELC

♣ 2차 일시 : 2009. 6. 4(목), 13:00

♣ 장 소 : ELC

◆ 문의처

▷ 교육개발지원팀 ☎760-5816

사설

대동제를 마치고

05월 20일부터 22일까지 HNU대동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대동제가 거행되었다. 가요제가 개최되었고, '윤하'와 '다이내믹 듀오'가 초대가수로 참석하여 흥을 돋우기도 하였다. 한겨레의 겸도 시범, 그리고 사진 및 애니메이션 동아리의 전시도 있었다. 저녁에는 주점이 열려 선후배, 교수와 학생들이 친교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사흘 중 이틀이나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한성인들이 축제에 참여하였다.

이번 축제에서는 한성인의 열정이 발현되었다. 또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사제 간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도 있었다. 지나간 날을 추억하고 학교의 발전을 바라는 이야기가 음악의 리듬을 타고 운동장 위를 날아다니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번 축제에는 다른 학교의 학생, 이웃 주민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예년에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한성의 대동제에서는 '이웃과 함께 하는 대학축제'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시민을 유인할 만한 볼거리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볼거리의 결여는 예산의 부족과 관련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짐작된다. 그러나 보다 큰 원인은 관심의 부족과 사고의 결여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적은 예

산이라고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하여, 주목할 만한 행사 한두 가지를 시도해볼 수는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는 성북구·종로구의 구민들이 자주 찾는 낙산, 대학성 및 젊음이의 거리인 대학로와 인접하여 있다. 낙산을 활용한 문화·체육행사를 진행하여, 낙산과 대학로를 찾는 시민 중 일부만이라도 대동제에 참여하게 한다면, 우리의 대동제는 한층 더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성북구·종로구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행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예전대 대학로-낙산-한성대를 코스로 하는 '낙산 거북이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또한 '낙산 패션쇼와 의류 판매 행사',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서울시의 역사문화유적 둘러보기', '사진으로 보는 서울시의 역사문화유적' 등의 행사도 시도해볼 수도 있었다.

이는 서울시민에게 우리 학교를 홍보할 수 있게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의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우리 학교의 대동제가 교직원과 동문들만의 행사가 그치지 말고, 서울의 시민들이 함께 하는 진정한 '한성의 대동제'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독단적 판단은 금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참 요란한 한 해를 보냈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나라가 한 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다 보니, 사회문제에 대해서 한 걸음 물러나 있던 대학생들도 하나둘씩 사회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서 NGO나 시민단체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풀기 원하는 대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학교만 해도 낙산의 메아리를 보면 등록금 문제나 각종 사회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학생들의 글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학교 총학생회장은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 대동제를 준비하며 사회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발언도, 어떠한 프로그램도 편성하지 않았다. 사회문제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해도 학생들의 참여가 적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먹고 마시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을 넘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를 이해하고

한 번쯤 되돌아보는 것.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 무엇이 학생들을 더 위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예비 사회인인 대학생들이 앞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는데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거대한 사회문제도 있지만, 대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등록금 문제에서부터 취업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사회문제도 많다. 학생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한 문제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음에도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다고 선명적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문제이다.

대동제와 같은 큰 장에서 등록금 문제나 취업 문제 등 총학이 들고 나온 공약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자리에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것인지 의문이다. 한 번이라도 학생들의 의견을 묻은 적이 있는가? 대학사회에 산재하는 문제들에 대해 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는가? 의견을 묻기도 전에 지레 짐작으로 독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대통령의 비극

전진우 (언론인·법고 초빙교수)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마흔 네 명의 대통령이 배출되었다. 현재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 44대 대통령이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인물들은 다음의 다섯 분이다(물론 이러한 평가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해보자. 첫 번째는 영국에 대한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다. 1789년부터 1797년까지 재임한 워싱턴 대통령은 1796년 3선 대통령으로 추대되었지만 민주주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는 사상을 물려다녔다.

두 번째는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1801~1808). 미국헌법을 마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제퍼슨 대통령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는 차라리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명언(名言)으로 언론자유를 옹호했다.

세 번째는 노예해방전쟁(1861~1865)으로 미국 연방제를 실질적으로 통일시킨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국민의, 국

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는 게티즈버그연설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널리 알렸다.

네 번째는 서구열강의 제국주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20세기 강국의 기반을 닦은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1901~1908).

다섯 번째는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그는 역대 미국대통령 중 3선(1933~1945)을 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이들 외에도 제임스 먼로(제5대), 우드로 윌슨(제28대), 해리 트루먼(제33대), 존 F 케네디(제35대), 로널드 레이건(제40대) 대통령 등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에 임기 중보다는 퇴임 후의 모습이나 활동으로 후대에 훨씬 높은 평가를 받는 대통령들도 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지미 카터(제39대) 대통령이 그런 분이다.

세계 2차대전 이후 소련의 팽창을 봉쇄

(‘트루먼 독트린’)하고,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했던 트루먼 대통령은 1953년 퇴임한 그해 여름 스스로 운전을 하며 부인과 함께 여행을 했다고 한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허름한 모텔에서 잠을 자며, 길가 식당에서 일반인들에 섞여 식사를 했다고 한다. 그는 기업에서 고문자리를 제의했는데도 대통령직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당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금이 없던 시절이라 그의 수입은 육군에서 받는 연금(월 111달러)뿐이었다고 한다.

카터 대통령(1977~1981)은 국제적으로는 '인권 대통령'으로 알려졌으나 국내에서는 '실패한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그는 퇴임 후 '평화의 특사'로 세계를 누볐으며, '지미 카터와 헤비타트'라는 단체를 만들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전 세계 무주택자들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펼쳤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대통령이다. 우리의 대통령들은 어렸는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독재를 하다 4·19혁명으로

로 하야(下野)해야 했고, 5·16쿠데타로 권좌에 올랐던 박정희 대통령은 '종신 대통령'을 하려다 부하의 총탄에 쓰러졌다.

전두환 노태우, 두 군부출신 대통령의 말로도 비참했다. '12·12 쿠데타'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 그리고 재임 중 저지른 천문학적인 부정부패의 결과였다. 민주화를 이끌었던 김영삼·김대중 두 대통령 또한 재임 중 아들과 측근 등의 비리로 곤욕을 겪어야 했다. 윤보선·최규하 대통령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去)했다. 참담한 비극이다. 애도하며 명복을 빈다. 대통령의 수난과 비운이 거듭되는 나라, 우리는 언제나 뒷모습이 아름다운 대통령을 볼 수 있을 것인가

한 줄 덧붙

시험기간에 꼭 지켜졌으면 하는 에티켓은?

떠들썩했던 축제가 지나가고, 어느덧 기말고사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을 맞이해 시험기간에 꼭 지켜졌으면 하는 에티켓은 무엇인지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신호철 [2009/05/22 18:04] - 책상에 컨닝페이퍼는 연필로써주세요. 그리고 시험끝나면 자취주세요

정우진 [2009/05/22 21:05] - 시험기간에는 시험만 보고 끝나기에 빈 강의실이 많습니다. 때문에 빈 강의실에서 다음 시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렇게 누군가 공부하고 있는 강의실에 들어와서 떠드는 무리들이 꼭 계시더라구요. 좀 상황 봐가면서 조용히 할 줄 아는 미덕을 가질 수 있었으면.

신호철 [2009/05/22 22:27] - 도서관 이용 후에 자리 반납해주세요! ^^ 들어갈 때 자리 없어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면 비어있는 자리가 많아요. 자리 맡기 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납 안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양샘 [2009/05/22 23:18] - 시험 도중에 한숨 푹푹 쉬거나 다리 떠는 행동 하지 말아주세요. 함께 시험보는 사람도 기운 빠지고 산만해지거든요. (영문 2)

강호운 [2009/05/23 07:24] - 시험중 못봐주세요 상대평가 힘들어요

임민화 [2009/05/23 10:31] - 도서관 자리맡아놓고 오랜시간 자리비우신다면 자리에 몇시까지 온다고 꼭지하나 남겨주세요. 여러학우들이 조금이나마 자리를 이용할 수 있을것 같아요. (행정 3)

최영욱 [2009/05/23 14:58] - 남의 책 몰래 훑쳐가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시험기간 딱저서 꼭 책 훑쳐가시는 분들이 여럿 있더라구요. 그런 불상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행정 3)

김명래 [2009/05/23 20:48] - 깨끗한 시험문화를 위해 컨닝은 자체해주세요. 노력한 댓가를 받는 멋진 한성인이 됩시다. (컴공 4)

이지은 [2009/05/24 01:18] - 도서관에서 늘 지켜야 하는 에티켓이지만, 시험기간만이라도 하이힐을 자체해 주세요. (행정 4)

전기영 [2009/05/24 01:33] - 도서관의 기본적 에티켓! 타닥타닥 노트북 소음, 휴대전화 사용, 소곤소곤 잡담, 좌석 배치가만원인데 열람실은 한산. 이것만 지키면 서보기분쯤께 공부할수 있을꺼 같아요^^ (경체 2)

여성욱 [2009/05/24 15:58] - CC는 좀 떨어져서 공부해주세요. 부러워요. (행정 2)

'한줄덧붙' 관련 게시물은 '낙산의 메아리'에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학우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가장 성의있는 댓글을 골라 작성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상품 수령시 연락할 수 있도록 댓글 뒤에 학과 및 학번을 꼭 기재해 주세요.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독·자·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기록영화, 『대추리전쟁』(2006)을 보고

풍년이 드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 대추리(待秋里). 이곳에는 이제 더 이상 곡식이 자라지 않는다. 대추리는 평택시 평성읍 서쪽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로, 논과 밭을 일구며 소박하고 평화롭게 생활하는 소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던 조용한 마을이다. 그런데 정부가 2003년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 지역을 미군기지 확장지로 지정했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공권력으로 강제 진압하였다. 주민들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인 대추리를 떠난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어떠한 주민들의나 어떤 수렴 없이 정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정에 따라 가지 이점을 확정지었으며, 보상금 지급에 대한 약속이나 주며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도 없는 모호한 상태로 이들을 내몰음으로써, 이 땅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그 기반이 취약한 것인가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미국은 미군의 주둔과 기지의 이전이 모두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을 견제하고, 한국의 방위태세를 유지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전략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전쟁 휴전 직후에 체결된 이 조약은 당시 미국의 종식민지적 지배를 받은 한국의 상황이 반영된, 분명한 불평등조약이다. 1953년 10월 1일 체결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이러한 낡은 조약은 근거로 주둔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재치 전략에 의한 미군기지 이전도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 전략적 측면이 주된 목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더 이상 우리 정부는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고 Pax-Americana가 되기 위한 미국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원인은 우리 정부의 책임이 더욱 크다. 미국의 독선적인 결정이 국민들의 생활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하여 그들의 집과 재산을 파괴했으며, 자유를 억압했다. 대추리에서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일련의 모습들은 정부의 실패한 민주주의, 거짓 민주주의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과거 냉전의 시대,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적이 되었던 어두운 역사를 답습 하는듯한 모습

이다.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4.19,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절절한 투쟁을 통해 어렵게 이 땅에 뿌리내린 민주주의는 과연 어디로 갔으며,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국민주권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안보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고, 결정이어야 한다. 냉전의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미국의 영향력을 이제는 차츰 배제해 나가야만 하는 때가 된 것이다. 먼저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세계를 분할하는 새로운 논리인 '힘의 논리' 앞에서 이에 당당히 저항하고, 거부할 수 있는 지식과 객관적인 시각을 길러야 한다. 평화교육이 지향해야 할 점도 바로 이 부분이다. 이러한 교육의 성과가 정부의 개혁 의지와 맞물렸을 때 비로소 이 땅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평화가 정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세계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임성진 (행정 4)

방중 교내 시설물 이용가능 시간 안내

학술정보관

	구분	방학 중 운영 시간
자료열람실	멀티미디어 정보실	평일: 10:00~17:00 토요일, 공휴일 휴관
	일반도서자료실	
	연속간행물실	
일반열람실	제 1,2,3열람실	06:30 ~ 23:00
	우촌관열람실	24시간

학생식당 11:00 ~ 15:00 스터디 라운지 09:30 ~ 17:30
자유실습실 09:30 ~ 17:30 노트북 대여실 09:30 ~ 17:00
체력단련실 08:00 ~ 21:00 건강관리실 09:00 ~ 17:30

* 모든 시설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음.

사람을 만나다 순수미술 동아리 유채꽃 회장 전미나(인테리어 3) 학우

미술은 돈이 많이 들고 어렵다? NO!



작년 9월, 한국문화재단전진흥원과 SH공사에서 주최한 '벽화 디자인 공모전'이 있었다. 이 공모전은 서울 삼양동 디지털미디어 시티이하 DMC에서 열렸다. 이 공모전에서 교내 순수 미술 동아리 유채꽃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공모전은 DMC의 건설 목표로 인해 이루어졌다. DMC가 위치한 삼양동은 원래 쓰레기 매립지였다. 이곳에 정부는 DMC를 미국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세계적인 정보미디어 단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고, 동시에 친환경을 주제로 삼았다. 작년 DMC가 건설될 무렵 개최된 벽화 공모전은 전국 각지 대학원 학생 중 참가신청을 한 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각 팀은 각각 일정하게 배정된 크기의 공사장 외벽에 벽화를 그려 우위를 가렸다. 공사장 벽에 벽화를 그림으로써 공사장을 둘러싸고 있던 차가운 회색빛 외벽이 환경을 미화하는 역할을 하는 벽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다. 이 공모전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미나(인테리어 3)학우를 만나보았다. 그는 동아리 '유채꽃'에 대해 "유채꽃은 대외적으로는 순수 미술 동아리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캔버스에 그리는 그림에서 벗어나 벽화를 그리거나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회원 간의 교류를 지향하는 동아리이다."고 말했다.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계기에 대해, 그는 "동아리 회원 중 공모전에 관심이 많은 학우가 벽화 공모전에 나가보면 어떻겠냐"며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1팀당 최대 4명까지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을 선발할 때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작품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날짜를 잘못 알아 뒤원만 아니라 유채꽃 회원 대부분을 동원해 그리게 되었다"며 "겨우 마감날짜에 맞춰 제출할 수 있었다. 당시 회원들에게 정말 미안했다."고 공모전 준비 당시를 회상했다. 전미나 학우는 "요즘 경기불황으로 인해 벽화 공모전 뿐 아니라, 미술 공모전의 개최

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어쩌다 가슴에 퐁 나뉘 공모전이 열려도 팀 단위보다 개인이 참가할 수 있게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동아리가 참가하기엔 힘든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각자 개인 활동을 주로 한다. 교내 연극 동아리인 낙산극회의 무대 배경을 그리거나, 날씨가 좋을 땐 야외로 나가 스케치 활동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순수 미술에 관심 있는 한성대 학생들에게 전미나 학우는 "미술은 돈이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면 하기 힘들거나, 어렵지만 한 것이라는 선입견이 많다" 그러나 "미술은 언제나 누구든지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 예술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학우들에게 "미술에 관심 있는 학우들은 언제든지 유채꽃에 가입문을 두드려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하나 기자 babychou@hansung.ac.kr

기자수첩

대동제, 아쉬움을 남기다

축제의 계절 5월을 맞이해, 우리학교에서도 대동제를 열었다. 하지만 이번 대동제에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 대동제 둘째 날에는 비가 많이 내리, 기존에 계획했던 행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원래 5시부터 시작하기로 한 무대 행사가 6시를 넘겨 시작한 것이다. 물론 둘째 날 중요 행사인 한성장기자랑은 비가 계속 내림에도 불구하고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모두 열정적으로 자신의 장기를 뽐내며, 학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런 대동제의 분위기를 띄우려는 참가자들의 노력에도, 학생들의 눈길을 많이 사로잡지는 못했다. 쏟아지는 비 때문에 캠퍼스에 학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장기자랑은 계속됐고 같은 과 학생들과 소수의 일반 관람자가 자리를 지켜 참가자들에게 기운을 실어주었다. 비가 오기 때문에 공연을 계속 지켜보려는 분명 힘든 일이다. 하지만 자과 학생이 장기자랑에 나올 때는 무대 앞으로 나와 열심히 응원하다가, 타과 학생의 공연이 시작하면 바로 빠져나가는 건 학생인으로서 그렇게 축제에 즐기자는 대동제의 취지와 어긋난다. 자과 학생의 공연에서처럼 타과 학생의 공연에도 따스한 관심을 가져 주었다면, 구름 낀 둘째 날의 무대는 좀 더

밝아지지 않았을까. 또한 대동제는 단순히 축제를 마치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 대학생의 다양한 끼를 뽐내는 축제이다. 따라서 각 과에서는 전통적으로 해온 주제를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과의 특색을 살린 행사를 진행 했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 한국어문학과와 지식정보학과에서는 북 카페를 열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멀티미디어과나 기계시스템과에서는 과학 기술 영화를 상영하는 등 각 과의 특색을 살리는 새로운 시도를 해 보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학교 대동제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부족했다. 경희대의 경우 지역 주민을 초청한 '골든벨 퀴즈'를 열었고, 연세대에서는 자원봉사동아리 학생들이 독거노인과 새터민 지원에 사용하기 위해 지역 센터가 만든 빵과 쿠키를 팔았다. 다른 대학교에서는 대학생만을 위한 축제가 아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의 축제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학교 대동제도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다. 박형성 학생원 · 정기자



대학원 인터뷰 꿈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는 고심 원우를 만나

우리는 흔히 입버릇처럼 '꿈'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해져 있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꿈을 가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는 꿈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국경을 넘어 자신의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예술대학원에 재학 중인 고심(뷰티예술학과)원우이다. 그녀는 중국 산둥 예술대학교에서 2년 과정을 마치고 중국 방송국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했던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화장을 해 주는 것을 즐겼다는 고심 원우는 한국으로 건너와 우송대학교 뷰티예술학과를 졸업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학교 예술대학원에서 분장예술을 전공하고 있다. "특히 좋아하는 것은 뷰티메이크업과 바디 페인팅이다. 정해진 규제가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며 자신이 좋아하는 메이크업에 대해 고

백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밝다. 그러나 고심 원우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당시 중국에는 특별히 메이크업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산둥 예술대학교에서 최초로 한-중 합작 메이크업 과정을 개설하였다. 우송대학교의 뷰티예술학과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데다 한국인 교수의 영향으로, 그녀는 2년간 한국이 공부할 때 유학을 준비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화장기술포나 아니라 대인관계도 세심하게 신경써야 하는 일이다. 그녀는 "지인들에게는 자유롭게 화장을 해 줄 수 있지만 연예인들을 대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다"며 그 이유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시국 분장을 해야 하는데 배우가 특정 스타일을 거부하는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화장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결국 메이크업은 단순히 화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상대하는 작업이다."라는 그녀의 말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화려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다 한국으로 메이크업을 다시 공부하려 한 이유에 대해 묻자 고심 원우는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북경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 여성들만이 화장을 하고 다닌다. 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훨씬 메이크업이 발전되어 있고 배울 것도 많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첫 유학생활이 힘들지는 않았을까? 고심 원우는 "처음에 한국에 도착해서 친구와 쇼핑을 나갔는데, 일어들 수 있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녀는 "음식에 적응하기도 어려웠고, 존댓말이 서툴러 처음에 고생이 많았다. 하지만 학교에 친구들이 생기면서 점차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덧붙였다. 고심 원우는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뷰티샵을 차리는데 관심이 있다"며 자신이 가진 꿈을 밝혔다. "중국 방송국에서는 한국 돈으로 한 달에 약 10만원이라는 박봉을 받으며 일했다. 하지만 돈보다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나이가 어린 만큼 메이크업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고 싶다. 기회가 되면 유럽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독·자·투·고

축제, 그 후

2009년의 축제인 대동제가 3일간의 그 일정을 마치고 우리들은 여름 방학을 고대하며 1학기의 막바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이었던 수, 목, 금요일 동안은 각종 재미있는 행사와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열렸고, 아울러 각 과에서 주제를 열어서 학생들이 축제를 즐겁게 보내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하루 끝날 때마다 다음 날 아침에 각종 쓰레기가 15톤 트럭으로 하나 가득 나온다는 것을 아는 학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에 15톤으로 하나니가 3일간을 계산해보면 어림잡아 45톤의 쓰레기가 나오게 되는군요. 게다가 아침에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은 학생들 당사자가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학교 미화를 담당하는 것이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분들의 수고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교의 축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교의 축제라는 것은 대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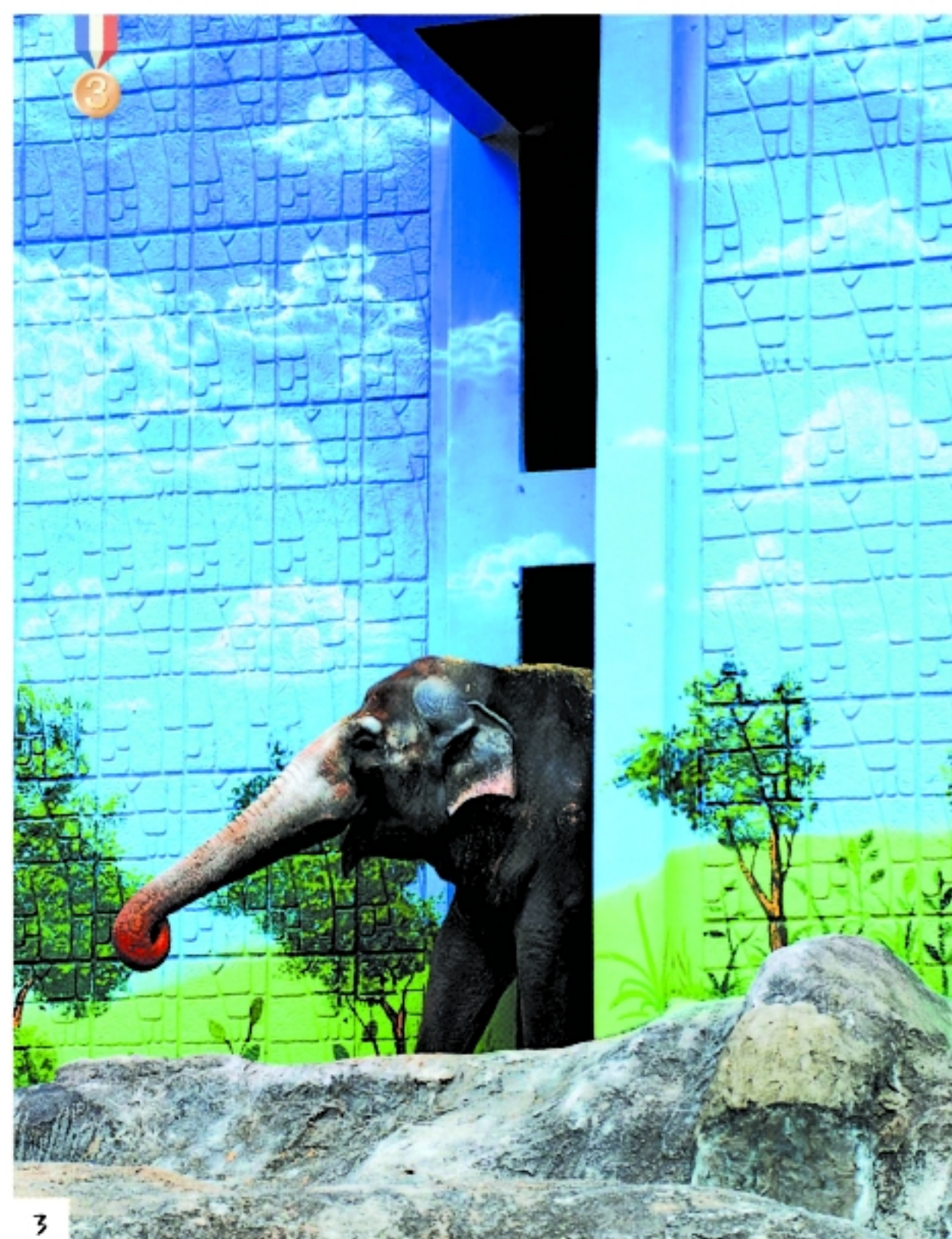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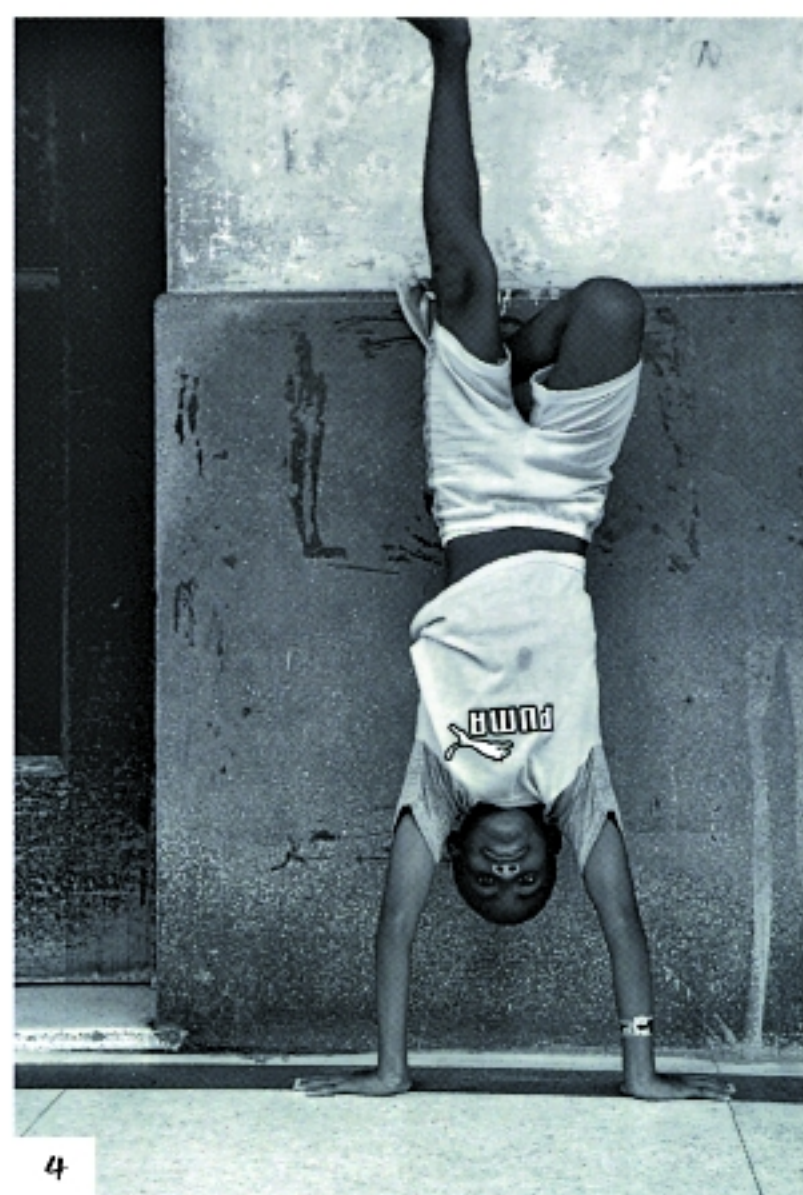
이끌어 나가는 행사라는 것을 모르는 대학생은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이를 즐긴다고 자신들의 뒤처리하는 남에게 맡기는 것이 가요? 축제가 끝나고 나서 며칠 동안은 운동장을 지날 때마다 구수하고도 진한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간간이 그 냄새는 강의실로 흘러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왜, 어디서 음식 냄새를 맡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운동장에 떨어져 제 때 처리하지 않은 음식물과 이곳저곳에 마구 버린 음식쓰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운동장에서, 곳곳의 하수구에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며 자연분해 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썩는 냄새'라는 것이겠지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 스스로 만들어 내고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마무리도 스스로 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축제라는 것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형호(영어영문 4)

주간식단표 2009년 6월 1일(월요일) ~ 6월 5일(금요일). A table with columns for date, meal type (breakfast, lunch, dinner), and food items with prices. Includes a note about menu changes at the dining hall.

가로 세로 가로. A word search puzzle with a grid and a list of words to find. Includes a '정답지 발표' (Answer Release) section with the solution grid and a '정답지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notice.



제3회 사진공모전



심 / 사 / 평



“모든 사진은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라는 말이 있다. 사진은 언제나 셔터를 누르는 순간 ‘과거’를 뜻하기 때문이며 더 이상 사진 속

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시간의 죽음, 즉 속절없이 흘러가 버린 증언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진은 현실을 근거로 하지만 언제나 현실의 ‘복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하자.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진을 통해 향수에 젖기도 하고 흘러간 시간 앞에 멈춰서기도 한다. 사진의 불멸성은 언제나 시간의 불멸성이라고 말한 어느 평론가의 말 그대로 사진의 역사는 이미 거대한 ‘기억’의 신화를 만들고 있었다. 1839년 사진이 발명된 이래 21세기의 디지털 환경은 모든 이의 모든 이를 위한 사진적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제는 마저도 공기, 혹은 물처럼 사진이 미지를 환경화 했다는 얘기가.

사진을 기술과 예술 사이에서 진동하는 매체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전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거기에 ‘일상’이라는 말을 보태도 좋을 것 같다. 그만큼 사진은 이제 전문적 영역과 일상의 영역이 혼재하는 시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제 3회 한성대 신문사의 사진공모전에서 발견했던 것은 모두가 사진의 생산자이며 소

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 만큼 잘 찍었는지, 얼 만큼 사진적 선택의 기회를 만났는지가 아니라 사진을 ‘살아가는 일’로 소화하고 있는 시대의 징후를 보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사진을 ‘프로’답게 찍고 싶다는 유혹조차도 이제 의미가 없는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 문제는 어설픈 프로 흉내를 내는 것조차 흉물스럽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오히려 솔직한 눈과 가슴이 소중해지는 것은 사진이 만들어 온 사진적 사상의 평준화 탓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김수성과 사진들을 통한 어떤 열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번 수상자들의 진지함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까닭이다.

금상을 받은 백상훈의 뛰어난 김수성은 물론, 은상 수상자 김필근의 정제된 사진적 시각, 그리고 동상 수상자 백수만의 반짝이는 포착력까지 모두 아름다운 사진적 경험들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다. 가까운 것은 지상에는 살리지만 수상자 명단에 오르지 못한 몇 사람의 노력이다. 이들 역시 사진으로서의 언어, 혹은 미적 체험에 관련한 충분한 가능성을 생각하게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진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것은 이미 우리들의 언어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수상자 모두에게, 아니 공모에 응했던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김장섭 한성대 대학원 회화과 초빙교수

당 / 선 / 소 / 감



이번 학기 일 반교양(디지털 사진과 영상, 지도 교수 홍건표)을 수강하면서 3월부터 ‘도시와 현대인 / 서울’이라는 주제로 작품제작계획서를 작성하고 작품전시회를 목표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것들(예> 남산, 한강, 청계천, 명동, 지하철, 시청, 고궁 등을 멋지게 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몇 번 셔터를 눌러대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사진, 편하고 흔한 시각의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사진들만 잔뜩 있더라고요. 고민 끝에 차라리 새로운 시선으로 제 주관을 담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작품은 울산 이촌동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63CITY와 한강을 촬영하다가 해가 진 후 반대편 뒤를 돌아보니, 갈대가 무성했고 그 뒤로 이촌동 대림아파트와 성원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주민들 조망권 문제로 한창 시끄러운 것 같았습니다. 한강/여의도 경치와는 다른 느낌의 풍경이었고 아주 어두워지기 직전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재빨리 바다에 50mm 렌즈와 삼각대를 물리고 촬영했습니다. 이날 촬영한 200여 장의 사진 중 단연 가장 마음에 드는 컷이었고, 최적의 느낌으로 표현하기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후보정과 인화를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학교 신문사 공모전의 성격에는 잘 맞지 않는 사진이라 생각하여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제출하고도 입상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수상이라 너무 기쁘고 놀랍니다. 제 작품을 인정해주신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품 제작에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 홍건표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SONY DSLR CLUB 회원분들(오아지향, 후카이형, 웅스형, 민석범, 修行님, 미래의 NG작가 아인즈=등등), 그리고 늘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총대의원회 식구들, 항상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스승님인 최경화 선생님께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백상훈 (산공 4)



1. '무제' - 백상훈 (산공 4)
2. '무제' - 김필근 (영어영문 3)
3. '무제' - 백수만 (인테리어 3)
4. '무제' - 최준결 (인테리어 3)
5. '언제나' - 자한별 (지적 3)
6. '相念' - 박상욱 (태이 3)
7. '비애' - 백상훈 (산공 4)
8. '독바코 바라보기' - 남용주 (무영 3)



예술로 승화된 우리의 숨은 보석

사라지고 있는 서민 서커스



사진. 동춘서커스단 제공

국·내외 인기 가수의 노래 제목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 미디어 관련 용어에도 쓰이고 있으나, 점차 우리는 서커스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 지금의 젊은 세대에 게 서커스는 허상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에게도, 서커스하면 바로 떠오르는 광경이 있을 것이다. 화려하게 치장한 천막과, 그 속의 우스꽝스런 광대, 공중을 날아다니는 곡예사, 불꽃을 내뿜는 차차차, 진귀한 맹수와 조련사, 그야말로 별세계이다.

서커스는 오랜 시간동안 사랑을 받았고 황금기를 누렸다. 서커스단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축제와 사람들의 환호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서커스의 인기는 전과 같지 않고, 서커스단이 가는 곳에는 과거의 열광과 추어의 그림자만이 드리울 뿐이다. 서울에 사는 대개의 사람들이 서커스 공연을 볼 기회는 흔치 않다. 또 영화나 책에 의해, '괴물쇼'라는 왜곡된 서커스의 모습을 진짜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서커스는 엄연히 예술의

일인가? 박세환 동춘서커스 단장은 "옛날의 서커스는 서커스 공연, 연극, 쇼가 각 1시간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며 "30년 전만 해도 당시 최고 스타들과 함께하여, 마술, 마당극, 창 등도 빠짐없이 선보였었다"고 말했다. 이전의 서커스는 서커스 공연 뿐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종합 예술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서커스는 규모가 점차 줄어들어, 대중이 기대하는 화려함이나 웅장함과는 거리가 멀

성이 떨어지면 접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제 사실상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커스단은 동춘 서커스단 하나뿐이다. 동춘 서커스단은 창립 이래 80년의 역사 동안, 연중무휴로 운영되어 약 5만 회의 공연을 선보인 유서 깊은 단체이다. 그들은 의지 하나로 지난 몇 십 년을 근근이 버텨 왔다. 박세환 단장은 "서커스는 가장 대중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문화 공연인데 아무도 몰라준다"며 "난타나 비보이처럼 문화 육성 기금이라도 지원을 받으면 몇 배는 더 잘할 자신이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통 서커스의 맥이 끊길까 한스럽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판소리 같은 전통 문화재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당장 서커스가 처한 현실만큼은 아니다. 서커스는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니기에, 철저한 소외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동춘 서커스단은 중국 기예단과 협연을 하는 등, 나름대로 새로운 공연 전략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또 단원들은 전국 순회공연과 출장 공연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박세환 단장은 "서커스는 재미있고 스틸 넘치는 공연이다. 최신·대량 장비도 다 갖추고 있으니, 옛날의 유럽극단처럼 생각하지 말아 달라"며 "꼭 한 번 보시고, 뮤지컬이나 영화처럼 서커스도 사랑해달라"고 전했다.

이중재 기자 dogiluv@hansu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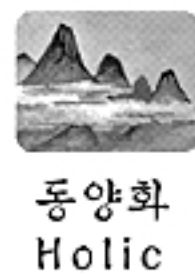
동춘 서커스단의 80년 역사, 5만 여회의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릴까.

한 장르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공연 내용은 쉽고 현대적으로 바뀌었으며, 예술성은 더욱 가미되었다. 현재 국내 서커스의 공연은 30여개 정도의 묘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품의 유연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묘기를 펼치는 아크로바틱 공연이나, 실크천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무용을 하는 공중실크무용은 마치 하나의 예술 공연을 보는 것 같다. 또 가면과 의상을 순식간에 바꿔가면서 화려한 연기를 펼치는 변검 마술도 볼거리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서커스는 어떤 모습이었

다. 지금 서커스는 퇴보의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서커스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은 서커스단의 일원들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화려했던 전성기가 끝나고, 단원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속속 떠나기 시작했다. 지금 동춘 서커스의 단원들 중 공연수가 중국인 등의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련사가 떠난 뒤, 서커스단에서 보유하고 있던 동물들은 병에 걸리거나 죽어갔다. 아무리 자부심이 있는 공연이라도, 이제는 경제



▲ 서커스 공연 중 변검 마술을 선보이고 있다.



경계를 넘는 미래의 상상력(III)



▲ 황이환, 중국, Cartoon Generation-Happy

56개 소수민족과 13억 인구가 움직이는 중국은 동아시아 예술의 오랜 전통인 수묵화의 중추적 맥락을 이어오고 있다. 중국 현대화단은 1920년에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진독수(陳獨秀)와 강유위(康有為)가 '미술혁명'이란 구호를 내건 이후 중국 예술가들은 중국화(水墨畫)에 대한 변혁을 위해 탐구를 시작했다. 진독수는 《신청년(新青年)》이라는 잡지에 '청년에게 고향의 글을 써 중국사회의 진취적이지 못한 보수성을 예리하게 규탄하고 자주적, 진보적 사상에 의해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자고 역설하였다. 5·4운동이 미친 영향은 비단 문화혁명이나 여성해방에 한정되지 않았다. 당시 유행한 민주주의와 과학에 대한 숭배는 중국의 전통에 대해서도 맹신이나 아니라 합리적인 연구를 하게 만들었다. 즉 비판적인 시각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전통유산을 정리하는 학술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때 유구한 중국 전통문화의 수목은 일대 개혁의 대토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중국 문화 속에서 수묵화의 전통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중국 수묵작가들 모두에게 큰 과제임이 아닐 수 없다. 현대미술을 수용하는 아시아의 태도는 서구의 현대미술을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위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아시아 현대미술의 정체성은 항상 의문의 대상이었으며,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에 있어서 특히 미술계는 이러한 관계속에서 더 큰 고민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황이환의 작품은 그들의 고민을 집적케 한다. 또 황이환의 작품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일종의 해답찾기라고도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작가는 아시아의 언어인 수묵을 통해 새로운 표현으로 재해석되는 수묵화에 대한 꾸준한 실험성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우연 현 중영대 강사

한국 in 외국인 서울 속의 작은 프랑스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가 공존하는 서래마을

서래마을에는 현재 프랑스인 800여 명이 모여 산다. 서래마을은 '개울이 서리서리 굽어져 흐른다'는 말에서 유래 되었다. 서래마을의 또 다른 이름은 '리틀 프랑스'이다. 한국 속의 작은 프랑스라는 뜻이다. 서래마을로 가려면 지하철 7호선 이수역에서 하차한 후 방배동으로 가는 마을버스 2번을 타고 서래마을 입구에서 내리면 된다. 서래마을에 있는 마을버스 표지



▲ 서울 프랑스 학교에서 서래마을 주민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판은 한글과 불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어 눈에 띈다. 서래마을에는 프랑스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마을버스 표지판뿐만 아니라 안내판이나 이정표도 한글과 불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다. 이곳의 거리와 상점에서는 한국어 아닌 프랑스어와 와 있는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더욱이 프랑스 국가가 곳곳에 걸려있는 인도를 걷다보면 마치 프랑스에 와있는 착각에 빠진다. 서래마을의 인도는 빨간색, 흰색, 파란색 보도블럭을 이용해 꾸었다. 이것은 프랑스 국기를 형상화 한 것이다. 보도블럭을 걸으면서 길 양편에 들어선 유럽풍의 빌라들이나 공원을 바라보면 마치 파리의 한 마을에 온 듯한 느낌이다. 서래마을은 단지 겉모습 외에도 한국과 프랑스의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마술이다. 길에서도 자연스럽게 프랑스어로 대화하는 사람을 볼 수 있고, 상점에서는 직원과 손님들이 프랑스말로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학교 담을 타고 들려오는 프랑스 어린이들의 이야기 소리, 산책에 나선 금발 주부와 학생들, 빵집을 향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야장야장 걷고 있는 아이의 모습들은 서래마을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인 풍경이다.

전시회장으로간 생활용품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품목 선정

서울 신문로 2가 한국디자인문화재단에 마련된 갤러리 디플러(D+)에서 오는 요즘 재미난 전시가 진행 중이다. 바로 '우리를 담은 디자인, Korea Design Heritage 2008' 전시회이다. 그동안 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명품 디자인 작품에만 집중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코리아 디자인 2008'에서는 이러한 편견을 없애고, 한국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52개 품목을 선정하여 전시했다.

'코리아디자인 2008' 선정 목록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품목이 다수 들어와 있다. 1963년에 처음 만들어진 모나미볼펜, 1983년에 태어난 아기공룡 둘리, 2002년에 생산된 아이리버 등을 비롯해 철가방, 솜투방 볼판, 바나나우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Be the Reds'가 쓰여 있는 붉은 악마 티셔츠나 타워텔리스, 금성 흑백 텔레비전 VD191, 김치냉장고 덮개 등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한국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품목들이다. 이번 '코리아 디자인 2008' 전시는 실물과 영상, 문헌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52개 품목에 얽힌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전시해 보여주

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우유에는 어린 시절에 공중목욕탕에 갔다가 목욕이 끝난 뒤 바나나 우유를 먹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던 추억이 담겨 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날 때 약속을 정하기 위해 전화할 걸던 빨간색 공중전화기, 열쇠 잠금 장치가 부착되어 주인아저씨 눈치를 보가며 보던 흑백텔레비전 등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 된 물건들에는 다양한 사연과 함께 전시 되었다. 들을 볼 수 있었다. 여러 제품을 통해 우리나라의 시대상을 알 수 있어서 뜻깊은 전시회였다."며 전시 소감에 대해 말했다. '코리아 디자인 2008' 전시는 시각·산업디자인의 측면보다는 한국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품목을 선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도 경제성장시대를 표상하는 경부고속도로, 80년대 세계 속 한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된 서울을 립픽의 마스코트 호돌이, 한국의 결혼문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궁정식 식장 등이 포함될 이유가 여기 있다. 여기에 초록색 비스코스사로 만들어져 40여년간 동일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이태리타를, 알루미늄으로 만든 철가방, 30평형대 아파트와 함께 한국 중산층의 상징으로 가장 오랜기간 동안 정수하고 있는 자동차 모델 소나타, 한국의 대중적인 회식문화를 상징하는 솜투방 볼판 등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를 계획한 박수경(한국디자인문화재단) 대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생활용품도 디자인으로써 가치가 있음을 일반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주부 김향서 씨는 "철가방 디자인은



▲ 바나나 우유

중급집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반 음식점에서도 배달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문화를 반영한 품목으로 적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코리아 디자인 2008' 전시는 한국디자인문화재단 디자인갤러리 D+에서 처음 일반인에 전시된 후, 우리의 디자인 유산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순회 전시로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김향서 기자 kmh77@hansung.ac.kr

▲ 모나미 볼펜 이번 전시에 대해 대학생 조소정(서울고대 1)씨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과거 우리 삶 속에 함께 했던 다양한 물건

강남에 대학생 패션 바람 불다

주최 측 "인재양성 위해 지속사업으로 발전시킬 예정"

지난 5월 23일 강남구 도산공원에서 강남패션페스티벌의 부대행사로 '루키 패션 콘테스트'가 열렸다. 이 날 패션 콘테스트의 주제는 '메지컬 스프링'으로, 국내 대학의 패션 관련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486팀이 각축을 벌였다. 상위 25위권에 올라온 팀들은 제각각 봄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작품에 적용했다.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한 디자이너 루비니씨는 "팀 단위로 진행하여 팀워크가 발휘된 점,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선한 부분이 많았다는 점이 좋았다"고 전체적인 심사평을 했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세종대 'Do not complain' 팀(패션디자인학과 02학번 윤준호, 03학번 김수업)은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것에 대해 "솔직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대학생활의 마지막에 좋은 추억이 하나 더 늘었다. 기쁘고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첫 대회치고는 꽤 큰 규모였지만 대회 준비기간이 조금 짧았던 게 아쉬웠다. 1차 본선 진출

자 발표 후 모델추첨과, 1, 2차 피팅 시간을 제외하면 제작기간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약 20일 정도였다. 기간이 조금만 여유가 있었다면 더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을 거라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 루키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Do not complain 팀

전했다. Do not complain팀에서 만든 의상은 콘크리트 건축물들 속에서 도심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이고 마법적인 '스프링'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들은 도심 속의 봄을 노랑, 분홍, 회색의 컬러메치로 표현

했으며, 역동적인 봄(Spring)은 운수철(Spring)로 해석해 유선형태의 디테일로 풀어냈다.

수상 후 윤준호 학생은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나 유학을 가서나 스스로에 대해 자신이 있을 때 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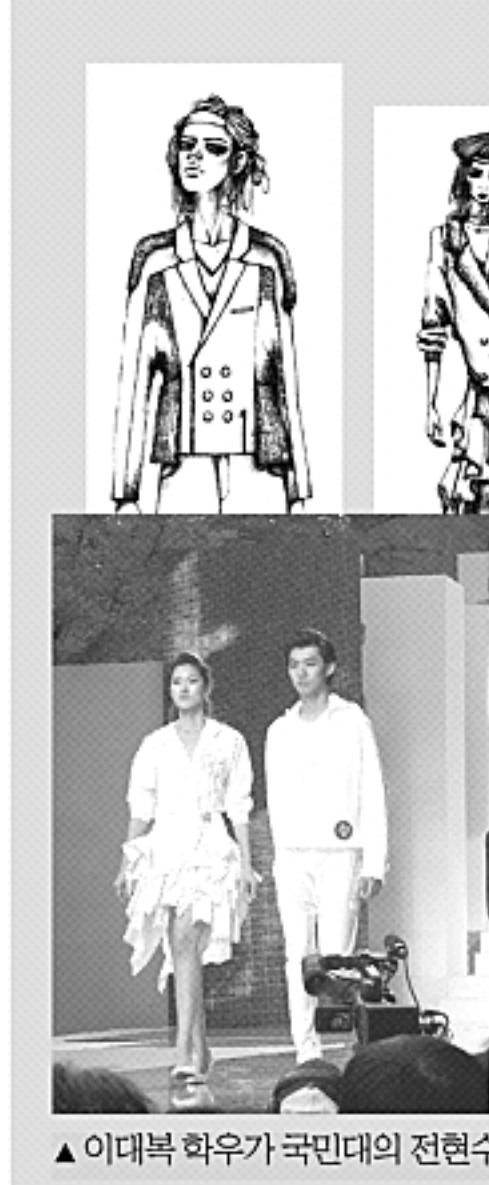
립하여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이다. 더 늦어지지 않게 지금부터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수업 학생은 "훈호형과 마찬가지로 개인 컬렉션을 해보고 싶다. 우선은 학교 생활에 충실한 후 졸업 후 지인들과 브랜드를 런칭하

는 것이 꿈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패션협회 박수영(패션행사팀) 차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개 개인이 아닌 2-4명의 팀단위로 참가를 했기 때문에 의상 제작 과정에서 팀워크, 아이디어 공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콘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입상한 학생의 경우 관련 업계로의 진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열린 강남패션페스티벌은 강남, 청담동 일대를 패션 특구로 개발하는 강남구청 사업계획의 일환이다. 강남구청 관계자와 패션협회에서는 패션페스티벌의 부대행사로 진행된 루키콘테스트를 우수 인재 양성 및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병찬 기자 chilo@hansung.ac.kr



▲ 이대복 학우가 국민대의 전현수 씨의 공동제작한 의상

"대학생이 가진 전문적인 재능 평가하지 않아 아쉬워"

루키 콘테스트에는 우리학교 학우가 참가해 25위 안에 드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기호 10번으로 출전한 'wanna be' 팀의 이대복(메디4) 학우는 '매지컬 스프링'이란 주제에 맞게 봄처럼 따스한, 부드러운, 산뜻한 기분을 살리고자 했다"며 "입을 수 있는 (wearable) 디자인이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심사위원들이 대학생들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했는데 그로 인해 대학생들이 지닌 전문적 의상

제작 능력은 그늘에 가려진 것 같았다. 대학생들이 지닌 '실제 의상'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작품 심사 및 평가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대복 학우가 디자인한 '봄을 산책하다'는 여러 색상이 난무한 대화장 모습과는 달리 오로지 순수한 흰색의 니트소재를 사용해 편안한 느낌을 주는데 성공했다. 또한 실제로 입을 수 있고 상품화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

았다. 패션 콘테스트를 관람하던 한 외국인인 아나운서 김병찬씨와의 인터뷰에서 "응원했던 10번이대복 학우가 디자인한 의상이 수상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대복 학우는 "이번 대회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그저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앞으로의 목표를 계속 바라볼 예정이다."며 이번 콘테스트 출전 소감을 말했다. 한편 루키콘테스트

에는 이대복 학우 외에도 우리학교 학부생 12팀이, 대학원에서 1팀이 참가 신청을 하였다. 문희부



비주류 문화, 이곳으로 집합!

안팎으로 톡톡 튀는 플래툰 콘스트할레

외제차, 유명 의류 브랜드가 즐비한 강남 입구정에 새로운 문화공간이 자리잡았다. 특이한 점은 미관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요즘 건축물과 다르게 컨테이너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 플래툰 콘스트할레(Platoon Kunsthalle)라고 불리는 이 공간은 비주류 문화의 성지나 다름없다. 이곳에서 근무하며 홍보를 담당하는 이종미씨는 "플래툰 콘스트할레는 비주류 문화를 자유롭게 전시하고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을 추구한 결과물이다"며 이곳을 소개했다.

플래툰 콘스트할레는 건물 디자인과 인테리어부터 독특하다. 플래툰 콘스트할레를 이루고 있는 28개의 컨테이너 박스는 고정된 미술관들이 담아내지 못한 문화를 다양한 방향으로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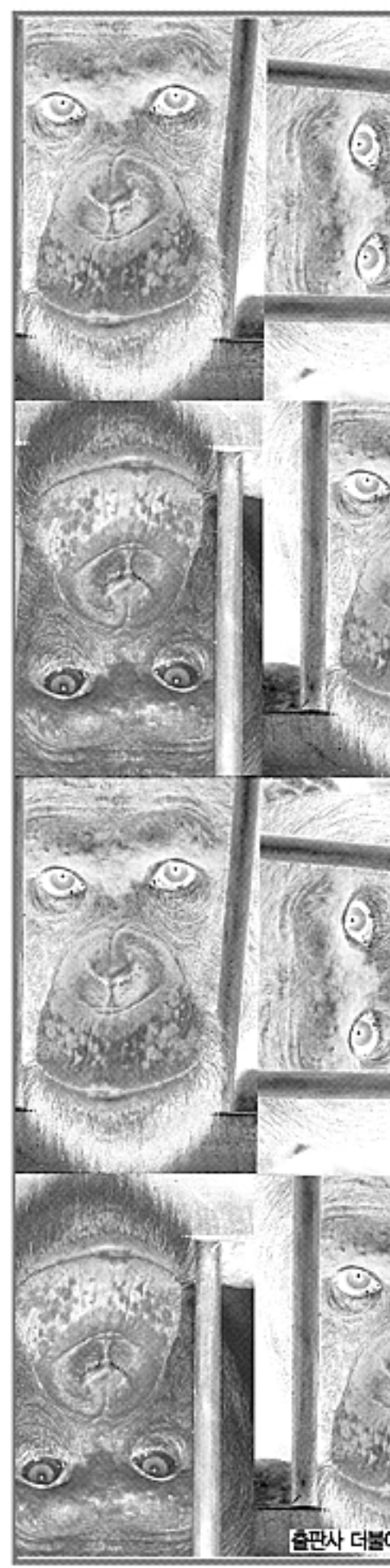
롭게 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운반, 운송하기 위한 기재로 아예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닥에는 아름다운 마그제 대신 아스팔트를 깔았다. 밖의 도로가 안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밖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이 독특한 공간에서는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열린다. 1달 간격으로 전시품을 교체하는 '쇼케이스 리부트'와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열리는 'D나이트'는 이곳의 정기 이벤트이다. 비정기적으로 는 비보이들의 댄스 배틀, 인디밴드 공연, '피치카 쿠치카' (제한시간 내에 즉흥적으로 작품을 만들어 선보이는 콘테스트) 등 비주류 문화를 주제로 한 행사가 열린다.

콘스트 할레는 아침 11시를 시작으로 밤 12시에 문을 닫는다. D나이트가 열리는 금요일, 토요일에는 무료 새벽 2시까지 불이 꺼질 줄 모른다. 또한 1층에는 커피, 주스, 와인 등 다양한 마실거리를 저렴한 값에 제공하는 바(bar)가, 2층에는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플래툰 콘스트할레가 어느 시간대건 방문해 부담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도심속 휴게 공간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작가가 플래툰 콘스트 할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나 직접방문을 통해 자신의 작품, 또는 작품 제작을 설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나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포트폴리오는 플래툰 콘스트 할레측의 심사를 거치며, 일정 수준을 통과한 작품은 쇼케이스에서 전시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아티스트 BEOM, SONG HOJUN, GRAFFITI RESEARCH LAB, VS, SOOMI PARK 등이 작품을 제작·전시하고 있다. 이종미씨는 "비주류 문화만 모아놔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

도 계시는데 이곳은 그렇게 어려운 공간이 아니다. 잠깐 들러서 차 한잔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고, 행사날에 맞춰와 행사를 즐기는 것도 좋고, 간단히 작품을 둘러보고 가도 좋다. 최근에는 신문 기사를 보고 신기하게 생각한 인근의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구경을 하고 가기도 했다."며 플래툰 콘스트할레가 대중에게 늘 열려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플래툰 콘스트할레는 실용적인, 도전하는 작가들을 지원한다. 기본적인 전시공간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6개월간 작업공간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서울 안에 생길 수 있을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플래툰 콘스트 할레는 기본적으로 모든 이용과 임대료가 무료이다. 행사 내용은 현재 플래툰콘스트할레 홈페이지(www.kunsthalle.com)에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려면 023447-1191(7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찬 기자 chilo@hansung.ac.kr



철창안의 동물도 숨을 쉰다

국내 최초 동물보호 잡지 <숨>

<숨>은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보호 잡지. '세상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평화로운 숨을'이라는 부제를 달고 창간되었다. <숨> 창간호의 또 다른 제목은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이다. 기존의 상업적인 동물 잡지가 양육 정보를 주로 다뤘다면, <숨>은 동물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데 주목하고 있다. 또 <숨>은 동물들의 귀여운 모습 대신 상처 받고, 학대 받은 모습의 사진들로 채워져 있다. 사진 속에서 그들은 하나같이 부상을 입었거나, 불결하고 좁은 우리에 갇혀있다. <숨>은 이러한 기사와 사진들을 통해, 동물들의 생명권이 침범히 무시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숨>의 김효진 편집인은 "창간호에서는 현재 동물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다루지고 있는지 알리고자 했다. 또 우리가 과연 온전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짚어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숨>에 따르면 일부 가족들은 상품처럼 취급 받으며, 그들의 삶 끝에는 도살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숨>은 이런 현실을 고발하며, 이를 '공장식 육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가족들은 생산비의 절감을 위해 주어진 수명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좁은 우리에 몇 마리씩 함께 살아가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은 닭이 서로를 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끼 때 부리를 자르고, 돼지가 서로의 꼬리를 물어뜯지 못하도록 꼬리를 자르고 이빨을 부러

뜨린다. 이것 역시 생산비의 절감을 위해 마취 없이 이루어진다. 가족들의 삶과, 생명을 대하는 우리들의 가치가 돼지고기 가격에 묶여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이 가족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숨>은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원에 관한 이야기도 실고 있다. <숨>은 기사 속에서 우리가 과연 우울증과 질병에 시달리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느냐고 묻고 있다. 이처럼 <숨>은 우리 사회가 가진 민감한 문제를 비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특히 <숨>은 개 식용이나 모피옷 문제처럼,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를 바로잡는데 앞장서고 있다. <외에도 <숨>은 곧 사육 정책, 동물 실험, 생명 공학 등을 주제로 한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뿐 아니라 FTA와 광우병 문제 같은 사회 문제를 속에서도, 경제 논리가 아닌 생명권을 우선하고자 노력한다.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임으로써 발생한 질병이다. 언론은 질병의 확산이나 인간의 감염 여부에 주목할 뿐, 인간이 소에게 행한 비인간적인 처사에 대해서는 논의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숨>은 동물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중점을 둔다. 김효진 편집인은 "<숨>을 통해 동물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문제제기하여, 사회적으로 담론을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이처럼 순수한 동물보호와 생명사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금은 <숨>의 제작비와 동물보호를 위해 쓰이고 있다. 그나마도 기획, 편집, 디자인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자원봉사로 이뤄지고 있다. 창간호에 실린 기사 전부는 수의학 교수, 약사, 환경연합의 회원 등이 무료로 기고한 글이다. 현재 마지막 작업 중인 <숨> 2호에 관해 김효진 편집인은, "반려동물이 중심 주제가 될 것이다. <숨> 2호의 제목은 '반려동물, 그 아름답고 오랜 우정'으로 창간호보다 내용이 조금 가벼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인권과는 달리, 생명권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금세 잊어버리기 쉽다. 생명을 절할 기회가 많지 않은 우리들의 경우는 더욱 그럴 것이다. 이번 외제에 <숨>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이종재 기자 dogilove@hansung.ac.kr

출판사 더불어숨 제공



▲ <숨> 창간호의 표지와 내지의 모습.

포토에세이



등록금 3,351,000 원
 학자금 대출 상환 99,000원
 핸드폰 요금 78,500원
 하루 식비 5,000원
 왕복 교통비 1,800원

문화생활은 피는물 흘리며,
 간식거리는 찢사리 끼기며,
 하루살이같은 몸주만 믿으며,

그러다가,
 음모수 하나 먹으려고
 주머니를 뒤지면,

허인영(한국어문 3)

아집을 경계하는 민주적인 원탁 토론

토론식 수업과 각종 토론 대회를 통해 나타나고 있어

원탁토론, 토론식 수업, 100번 토론 등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이는 '토론'이라는 개념은 집단적인 상호작용의 방법 중 하나를 말한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논점의 답을 얻기 위해 서로 다른 관점들을 교환,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와 평가, 결정 혹은 행동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론이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떠오르며 최근에는 학생들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토론식 수업은 전통적인 암기위주의 수업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자주 언급되는 수업 방법이다. 토론식 수업은 교사가 학생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대답-피드백'을 하는 문답 방식과, 학생이 토론의 주제와 진행과정을 모두 정하는 학생 중심의 토론 방식 등 진행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

우리학교의 '사회학의 이해' 수업은 토론식으로 진행된다. 이 수업을 듣는 김지희(인태리) 2 학우는 "토론식 수업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토론으로 진행하는 수업과 그렇지 않은 수업을 비교해보면 참여도의 차이와 수업 분위기 등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며 "또한 조별로 토론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토론 내용을 정리한 발표도 함으로써 더 많은 공부가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특히 원탁 토론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다른 토론 방식에 비해 학생들에게 자유롭고 적극적인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며 원탁 토론식 수업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토론 대회는 종류도 매우 다양하며, 해외의



▲ 한반도 정세를 논의 중인 한·일 원탁 토론의 한 장면

토론 대회 사례로는 1988년부터 개최되어 온 '세계 학생 토론 대회'가 있다. '세계 학생 토론 대회'는 1988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을 돌며 열리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토론 경연장이다. 올해는 영국, 인도, 뉴질랜드, 미국, 남아공, 한국, 일본 등 총 39팀이 참가했으며 뉴질랜드 대표 팀이 우승했다.

국내에서 유명한 토론 대회로는 '한국 청소년 과학탐구 토론대회', '대한민국 독서논술 토론대회',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주최하는 우리말 영어 토론대회' 등이 있다.

그 중 독서논술 토론대회는 10명을 한 모둠으로 하는 소규모 집단이 이야기 식으로 토론하는 '원탁 토론'의 형식을 취한다. 원탁 토론은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발언이 활발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원탁 토론은 충분한 경험을 지닌 사회자와 기록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청중 또는 관찰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청중 또는 관찰자는 없어도 무방하다.

원탁 토론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는 문제뿐 아니라 학교 내의 시설 미비 문제 등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도 다룬다. 진행방식에 있어서 참여자가 모두 토론에서 합의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똑같이 공유한다는 점에서 매우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지식수준, 대화 능력에 있어 차이가 클 경우에는 토론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 원형의 테이블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상석이 존재하지 않아 참가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토론을 이끌어가기가 다소 어렵다. 또한 발언이 특정인에게만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쉬우며, 자칫 잘못된면 참여자

가 무책임한 태도를 취할 수 있어 토론 결과의 질이 저하되기 쉽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원탁 토론의 장점을 높게 평가해 '원탁토론 아카데미'라는 단체도 설립되었다. 김지현(강원대 사학과 교수) 원탁토론 아카데미 원장은 "1993년에 창조적이고 공동체적인 인간상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교육과 운동을 시작했다"며 "토론을 통해 자유와 평등을 확대시키고자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설립의도를 밝혔다.

다른 토론들과 원탁 토론의 차이점에 대해 "토론에는 가장 기초가 되는 찬반 토론과 원탁 토론이 활용되는 다자간 논쟁, 다자간 문답, 다자간 토의가 있다. 그러나 원탁 토론의 방법을 이용하는 토론이 훨씬 더 교육적이다"며 단순한 찬반 토론과 원탁토론은 교육적 효과가 다를 것이라며 찬반 토론이 활성화 된 우리나라의 토론 교육을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찬반토론을 통해서 토론의 기초를 쌓을 수 있다. 그러나 찬반으로 나누어 논쟁을 벌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독선과 아집이 길러질 수 있다"며 "아집을 경계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원만한 토론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원탁 토론이다"고 원탁 토론의 장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그는 "토론은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우리의 교육에서는 토론식 교육이 힘들기 때문에 토론 대회를 통해 토론과 교육을 연계할 수 있다"고 토론 대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진미라 기자 lvxq@hansung.ac.kr

김하늘 기자의 **고집처럼**

동물들의 유토피아는 왜 무너졌나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미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각종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책이 바로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이다.

존스가 운영하는 매너 농장(Manor Farm : Manor는 장원이라는 뜻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메이저 영감이라는 돼지의 꿈 이야기에 들기 위해 헛간에 모였다. 메이저 영감은 1년 365일 고되게 일을 하지만 인간들은 최소의 먹이만 주고 짐질 곳만 제공한다 고 말하며 노동만 강요당하는 비참한 생활 조건은 모두 인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처럼 생선도 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동물이 모든 동물들의 왕 노릇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며 동물이 철저히 단결해 인간을 몰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메이저 영감은 꿈에 나타났던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에 대해 설명했다. 이 노래는 독재자 인간들이 추방되고 동물이 자유를 누릴 그 날

을 위해 땅을 흘려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주변 농장에까지 퍼져나갔다.

얼마 후 동물들은 먹이를 주지 않고 채찍질만 해대던 존스 일당을 몰라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틈틈이 글을 익힌 돼지 스노볼이 농장 벽에 흰색 페인트로 7계명을 적었다. 농장은 동물들의 자발적 노동으로, 자신의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먹는 풍요로운 생활이 계속되었다. 스노볼과 나폴레옹이라는 가장 똑똑한 돼지들이 농장 경영에 필요한 인간을 상정했고, 다른 동물들은 회의론을 통해 논의를 진행했다. 평화롭던 농장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나폴레옹이 어린 강아지 9마리를 길러 그 개들을 거느리고 스노볼을 농장에서 쫓아내면서 부터였다.

항상 나폴레옹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스노볼이 사라지자 나폴레옹은 지도자로 불렸고, 이내 돼지들은 농장 집으로 들어가 그곳에 살림을 차렸다. 돼지들은 범퍼리와 외의 오랜 대화를 통해 사회문제를 어떻게 과학으로 풀어갈 수 있는지를 탐구하게 된다. "며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탑사라운드에서 참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부담이 없다. 참가비 1천 원을 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모임과 달리 회원가입을 할 필요도 없고 모임을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강제성도 없다. 운영은 서강대에서 하고 있지만 타학교 학생도 참여를 원하면 언제든지 홈페이지(http://www.topsround.com)를 통해 모임 주제와 모임 시간, 장소를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김병찬 기자 chito@hansung.ac.kr



때마다 벽에 적힌 7계명은 조금씩 수정되어 갔다.

돼지들이나 개가 제 손으로 식량을 만들어나는 일은 없었다.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고 식욕은 항상 왕성했다. 반면, 다른 동물들은 항상 배가 고프고, 짚 위에서 잠을 잤으며, 밭에 나가 일을 했다.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고생했고, 여름에는 파리에 시달렸다. 기쁨을 절약한다는 이유로 헛간에 등불을 켜는 것도 금지했지만, 돼지들은 잠 잘 때 켜고 있었다.

어느 날 동물들 앞에 돼지 한 마리가 뒷다리로 걸고 있는 광경이 펼쳐졌다. 앞발에는 채찍을 들고 있었고, 양들은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 좋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농장 곳곳을 누볐고, 흰 벽에 적혀있던 7계명에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는 한 마디만 적혀있을 뿐이었다.

돼지들은 인간들과 포커를 쳤고, 나폴레옹은 '동물 농장'이라는 이름을 '매너 농장'으로 다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동물들의 시선은 돼지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돼지로 옮겨졌다. 하지만 이미 누가 인간이고, 누가 돼지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조지 오웰은 '동물 농장'을 통해 찬란한 대의명분을 내건 어떤 혁명도 시간이 지나면 본연의 목적에 반하는 방향으로 변질된다는 주제를 시사하고 있다. 동물들이 혁명에 성공하고 난 후 모두가 능력에 맞게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갖는 유토피아와 같은 생활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돼지들의 권력욕 탓일까. 돼지들의 연변에 섰던 돼지들이 돌아오는 무지한 동물들 탓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일 뿐 이를 수 없는 한순간의 꿈을 좇은 탓일까.

문학을 공부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학이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학과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경제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본주의의 한계가 드러나 버린 이 시점에서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안에 나타나는 사회주의의 한계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본다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개선안이 나올 수 있지는 않을까?

문학이 사회를 담고 있다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또한 문학에서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어본다.

김하늘 기자 blue dreams2@hansung.ac.kr

<7계명>

1. 돼 밭을 경는 자는 모두 적이다.
2. 네 밭을 경는 자, 또는 낱개가 있는 자는 모두 친구이다.
3.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4.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5.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서는 안 된다.
6.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7.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과학, 이야기 마당으로 쉽게 풀어볼까

대학가에서 과학 대중화를 선도하는 탑사라운드

이색 스타디가 학생들의 눈길을 끄는 요즘 과학을 '공부하기 위한 과학'이 아닌 재미난 이야기 소재로 이용하는 스타디 그룹이 있어 화제다. 탑사라운드(TOPS Round)라고 하는 이 모임은 평소 대중과학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관심이 많은 서강대학교 김학수(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와 바이엘코리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과학'이라는 기업 철학이 만나 탄생했다.

TOPS Round란 'Think Our Problem relative to Science' Round(Table)의 약자로, 해석 그대로 공중체의 문제를 과학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는 자리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김학수 교수의 연구 성과가 반영되어 있다. 김학수 교수가 추구한 과학의 대중화 교육은 '사회적 이슈'를 통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과학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송재령(과학 커뮤니케이션 학과) 책임 연구원은 "탑사라운드 프로그램의 중요 포인트는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 커뮤니티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공동체 문제를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지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우리 주변에 산재한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며 탑사라운드를 소개했다.

탑사라운드 회원들은 학기가 시작하면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을 주제로 지정해 한 학기 일정을 짠다. 일정이 정해지면 해당 달에 발표를 맡은 학생은 PPT발표를 준비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강사를 초빙해 '이야기 마당'을 연다. 이야기마당은 몇 가지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시간에는 발표를 준비한 학생이 정해진 주제를 토대로 구성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한다. 두 번째 시간부터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가 찾아와 강연을 연다. 모임 외의 활동으로는 커뮤니케이션 클리닉과 방중 캠프가 있다.

이중 클리닉은 글썽만 아니라 스피치, 인터뷰, 동영상 제작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자문

위원 등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작품은 캠프에서 발표하여 타 학생들과 공유하도록 하며, 소정의 포상을 수여한다. 이 밖에도 탑사라운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8회 이상 꾸준히 참여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바이엘과 서강대가 공동으로 인정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해 탑사라운드의 부회장이자 성공회대에 재학 중인 송하원(신방과 05학번) 씨는 "개인이 가진 문제의식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통해 사회를 보다 전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탑사라운드 프로그램의 특색이자 장점이라 생각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과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이 때문에 이곳에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을 주요 활동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송재령 책임 연구원 역시 "강연 시간을 50

분 이내로 최소화하고 질문, 답변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길게 잡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참여활동을 증진한 것으로, 학생들은 전문가와의 오랜 대화를 통해 사회문제를 어떻게 과학으로 풀어갈 수 있는지를 탐구하게 된다"며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탑사라운드에서 참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부담이 없다. 참가비 1천 원을 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모임과 달리 회원가입을 할 필요도 없고 모임을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강제성도 없다. 운영은 서강대에서 하고 있지만 타학교 학생도 참여를 원하면 언제든지 홈페이지(http://www.topsround.com)를 통해 모임 주제와 모임 시간, 장소를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김병찬 기자 chito@hansung.ac.kr

동아시아, 전쟁의 기억과 평화의 꿈

저자 : 김 귀 옥 외

신간 도서안내

- 아래로부터 살펴보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동아시아인의 삶과 정체성 -

◆ 내용소개

제1부는 구술사 방법론을 통하여 한국전쟁을 이산가족, 지역민, 전쟁미망인이라는 주제로 파헤쳐 본다. 월남·월남가족의 생애 이야기를 통해 가족이 분단구조의 모순을 담지한 집약처임을 보이고(1장), 한국전쟁으로 지역사회가 해체되는 장면을 생생하게 증언하며(2장), '강한 어머니'를 중심으로 살아남은 가족에게 전쟁과 아버지의 부재가 어떤 흔적으로 남았는지(3장) 파헤친다.

제2부는 한국전쟁과 일본 사회의 민중적 시각과 오키나와의 맥락에서 그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시도한다. 일본 패전 후 한국전쟁 발발로 이어지는 시기 여성노동자들의 경험에 주목하여 전후 여성해방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전시경제에 여성이 대대적으로 참여했으며 전후 민주화 과정에서 여성이 해방되었다는 서구의 통념은 일본에도 그대로 수용되었으나, 저자는 패전 후 여성 섬유노동자의 구체적 삶을 통해 이것이 허구임을 폭로한다(4장), 그리고 한국전쟁 직전에 미군의 직접 점령과 일본에서의 분리에 의해 거의 '무권리 상태'로 국제무대에 내던져진 오키나와에서 민중이 미군의 정책과 구조, 국제관계에 규정되면서도 그러한 구조를 흔들고 변화를 촉구해왔음을 밝힌다(5장).

제3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1950년대 연속 시간 속에서 일본과 중국 지역 동포들의 삶과 운동의 의미를 새롭게 조망한다. 한국전쟁 시기에 전쟁난민인 동시에 젠더의 역할을 받는 이중의 악착했던 제일조선인 여성들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분투한 모습을 살펴보면, 저자는 여성문제를 앞에서 과연 민족주의를 부정적으로만 보아야 하는지 반문한다(6장). 광복 후 남북의 갈등은 재중조선족 사회에도 투사되어 고통을 내면화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자 동지였던 중국 조선족 주역들이 광복과 함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으로 갈라져 사활을 건 투쟁을 해야만 했던 현실에 재중 조선족 학자인 저자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한다(7장).

제4부에서는 베트남이나 한국의 참전 군인과 민간인들에게 베트남전쟁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그리고 베트남전쟁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힌다. 베트남인들이 '항미 전쟁'이라고 부르는 베트남전쟁이 문학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핀 저자는, 전후 베트남 사회에 진정성 통일은 인간애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전쟁 희생자들의 아픔이 치유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도 온다는 메시지를 발견한다(8장). 한편, '월남재발' 한친의 베트남 진출은 미국의 '안보 산업화'에 한국 기업이 결합한 것으로, 파월기술자들의 일상은 준(准)병영생활이었고 노동은 목숨을 내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것이었다. 저자는 최근까지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던 베트남전쟁 시기 파월기술자들의 생활, 파월경제특수에 기려진 자본과 노동의 갈등, 당시 전쟁이 초래한 사회적 변화의 단층을 드러낸다(9장). 마지막으로 베트남전쟁 중의 군사문화와 고찰해 우리 몸에 체화된 국가주의와 이분법적인 흑백논리, 적과 아를 구분하는 집단적 폭력성, 반공 이념과 레드 콤플렉스, 집대문화와 성매매 및 폭력의 정당화, 총력전과 총성이라는 집단주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상처로 남아 있음을 발견한다(10장)





“대학생, 일반인과 차이가 없다”

‘작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이외수 작가를 만나다

소설가 이외수. 그는 고정 독자층 40만 명을 가지고 있는 거물급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하지만 그는 소설을 쓰는 일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1월부터는 라디오 DJ로, 개인전을 여는 화가로, 최근에는 TV에 간간히 나오는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다른 소설가와는 다르게 집필 외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집필을 할 때는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외수 작가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도 얼마 전 ‘청춘불패’의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 그는 “사람들은 내가 라디오 DJ도 하고 TV에도 나오기 때문에 글을 안 쓰고 사는 줄 알지만 다 하고 있다. 놀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디어에서만 봐오던 이외수 작가를 실제로 보니, 사회적인 명예를 안고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유식한 척하지 않았다. 그것이 현재 사회적으로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외수 작가가 다른 점이다.

—소설책보다는 『하악하악』, 『여자도 여자를 모른다』 등의 명상집과 수필집을 많이 발간하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현대인은 본격문학인 소설을 접할 만큼 소양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인시 위주의 책임기가 습관화되어서 감성력을 모두 상실해버려 행간을 읽을 줄 모르게 되었다. 명상집이나 수필집을 많이 발간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학 외적인 글들을 통해 문학의 재미와 행복감을 맛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명상집, 수필집 등의 문학 외적인 글들은 모두 본격문학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징검다리, 미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글들은 전혀 문학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다.”

—우화집 『외뿔』을 보면, ‘세상을 저러려 살면 안 된다는 사실쯤은 나도 잘 알고 있다’ 처럼 소리 나는 대로 글을 쓰신 부분이 많습니까. 작가로서 이렇게 쓰는 것에 거부감이 없으신가요.

“언어가 아닌 기호를 쓰는 것이 언어파괴라고 생각합니다. ‘ㅋㅋ’ 같이 자음만 있는 형태들이나 지나치게 말을 줄여서 일반사람들이 내용을 쉽게 알 수 없는 것이 언어파괴라는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내가 『외뿔』에서 쓰고 있는 형태는 신조어이지 언어 파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읽을 때, 속고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에 표현할 수 없었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창조성이 뛰어난 것이 한글의 장점이다.”

—작가님은 춘천교대를 중퇴하신 후 학원 강사로 근무하셨습니까. 원래 교육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문학 쪽으로 관심이 옮겨진 것인가요.

“나는 원래 화가지망생이었는데 우리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라서 아버지의 뜻으로 춘천교대에 입학했다. 대학에 간 후에도 나는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내 주위에는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보다는 글을 쓰는 친구들이 더욱 많았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책을 열심히 읽었다.

처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집집마다 밀린 방세를 갖기 위해서였다. 지방신문의 신춘문예에 응모했는데 당선되었다. 지방신문의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것은 지방에서만 문인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중앙문단에 데뷔를 해 본격적인 문인활동을 하기위해 그 후 나는 산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문장공부를 했다.

문장공부를 한 후, 중편소설 『훈장』으로 세대신인문학상을 받았다. 당시에는 이 상이 가장 권위 있던 문학상이었다. 그러나 수상 후 3년 동안 청탁이 오지 않았다. 내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창작집 『꿈꾸는 식물』을 내면서이다. 이 책을 낸 후 당시 가장 권위 있는 평론가인 김현에게 극찬을 받았다.”

—대학생의 문제로 초점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20대는 어떤 시기일까요.

“20대는 성공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성공은 완성하는 시기가 아니다. 20대에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연예인과 운동선수뿐이다.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20대 대학생들은 무엇이든 빨리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학점관리, 영어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취업은 한 후에는 비정규직 88만원 세대로 남게 됩니다. 한편 사회에서는 대학생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대학생은 일반인과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초딩이 쓰는 핸드폰 고리를 대학생도 쓰고 있다. 초딩이 듣는 빅뱅 노래, 대학생도 듣고 있다. 초딩이 하고 있는 게임을 대학생도 하고 있다. 초딩이 하는 걸 대학생도 한다는 것인데, 이 말은 이 두 집단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차별화되려고 하면 읽는 책이 달라야 한다. 하지만 대학생은 책을 초등학생만큼도 안 읽는다.”

대학생이 왜 책을 읽지 않는지 이외수 작가에게 물어보자 곁에 있던 이외수 작가의 아내분은 “고등학생 때에는 대학을 가려고 책을 읽

잘 파면 되고, 물고기는 해염을 잘 치면 된다. 그걸 다 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그런데 다하려고 하니까 염두가 나지 않아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하나라도 잘해야 하는데 대학생들은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 대학시절은 자신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찾는 기간이다. 그런데 대학생들은 그것을 찾지 않는다. 단지 취직이 힘들다는 핑계를 대면서 바른 가치관의 정립, 잠재력 개발, 희망 등을 포기해버리고 더 큰 병폐를 안고 사는 것이다. 그들은 무뎠음만 불로소득을 꿈꾼다. 대학생들에게 로또는 인생 수호신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대학생답지 않은 작태를 보이고 있다. 온갖 난관을 극복해 현재 위치에 있는 기성세대들이 볼 때, 대학생들은 탐탁해볼 수가 없는 것이다.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와 현재 대학생과의 시간차이는 20~30년에 불과합니다. 왜 현재 대학생은 가치관과 정체성을 잃게 되었을까요.

“대학생에게 현재 볼 수 있는 현상은 대학가에 서점이 사라지고 술집이 생겨나는 시기와 일치한다. 서점이 사라지고 술집이 생겨날 때쯤부터 대학생들은 가치관과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대학생들이 만든 것이다. 수요에 의해 공급이 생기는 것이라면 말이다.

하지만 대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나 경영진 자체의 문제도 크다. 현재 철학과의 돈이 안 된다고 해서 대학마다 철학과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나는 대학을 ‘거대한 지식의 영안실’이라고 표현한다.”

—책을 읽기 위해서는 먼저 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거부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보다 독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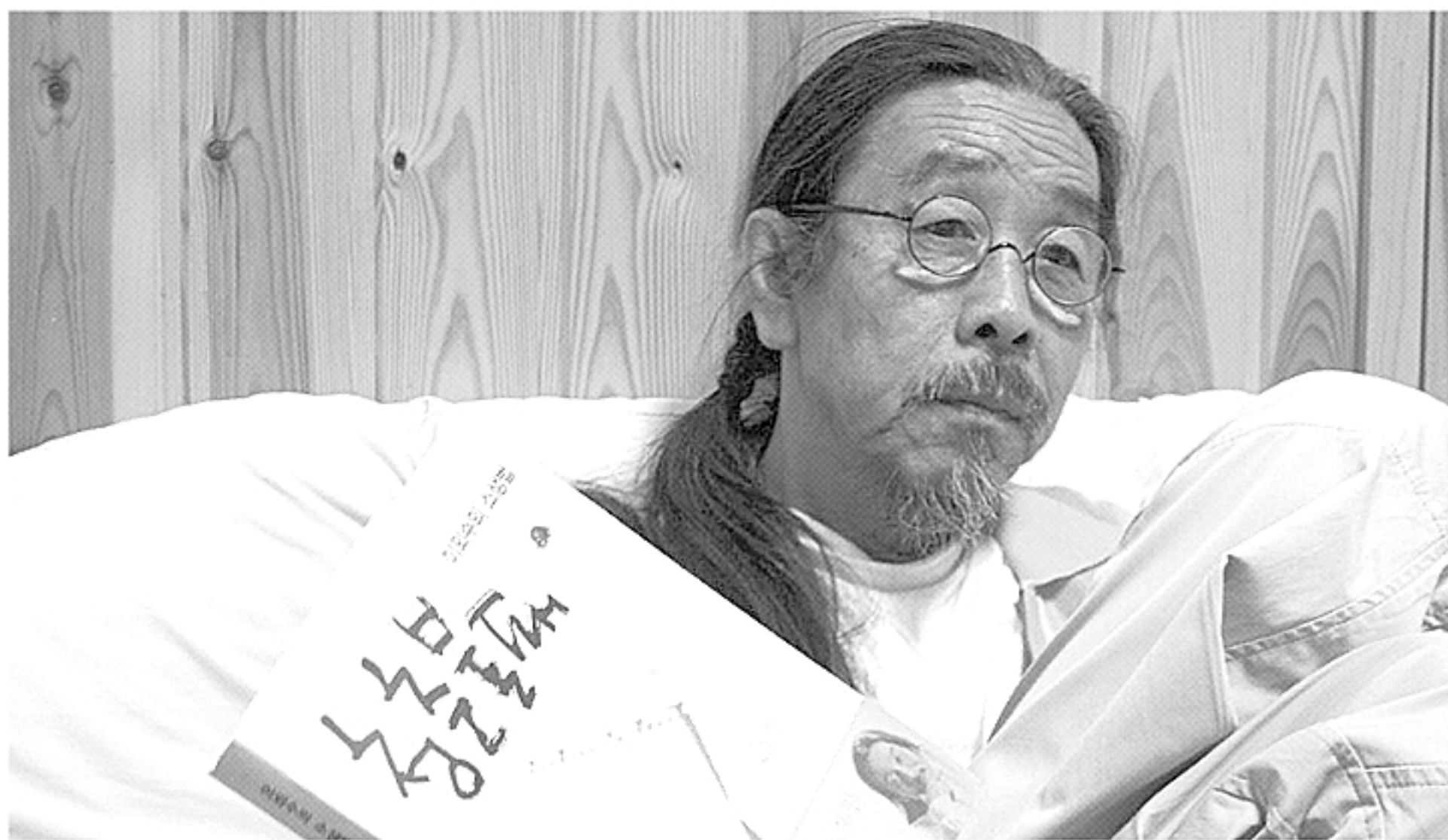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자각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숙고해야 한다. 또한 그것에 필요한 것이 독서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숙고하지 않고 자각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살 수밖에 없다.

또한 정책적으로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쉽게 말해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최종목표가 겨우 취업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얼마나 한심한 목표인가. 현재의 교육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양성하지 못한다. 부모는 용돈지급기에 불과하여 어렵 때부터 ‘엄마 돈’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이들이 물질의 풍요와 행복의 척도인 양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학생들이 창의력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창의력 제로지대’이다. 히트곡의 대부분이 표절사비에 휘말린다. 창의력 결여로 인해 혼자서 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하는 습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습성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임선희 기자 sunny@hansung.ac.kr

“제비는 하늘을 잘 날면 되고, 다람쥐는 나무를 잘 타면 되고, 두더지는 땅을 잘 파면되고, 물고기는 해염을 잘 치면 된다. 그걸 다 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그런데 다하려고 하니까 염두가 나지 않아서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는데, 대학가는 시험이 다 끝났기 때문에 책을 안 읽는 것이다”고 응수했다.

—독서를 한다면 대학생의 사회적 위치가 정립되거나, 대학생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까요.

“인간의 최종목표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고등학생의 최종 목표는 대학을 가는 것이고, 대학생의 최종목표는 ‘겨우’ 취직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치관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러한 문제는 독서를 통해 해결된다.

한편 대학생들은 영어에 열광한다. 정체성이 없는 것이다. 제비는 하늘을 잘 날면 되고, 다람쥐는 나무를 잘 타면 되고, 두더지는 땅을

하지만 독서를 통해 가치관정립과 정체성을 찾는다면 현재 대학생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가 대학생이 겪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나요.

“아무 책이나 많이 봐라. 만화도 상관없다. 많이 보면 선별력이 생긴다. 제목만 봐도 알게 되어 있다. 책이 가진 장점 중의 하나는 현실 속에서 살아볼 수 없는 인생, 겪기 어려운 것들을 책을 통해 단시간에 체험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다양한 간접경험들은 내면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적 에너지를 보충시켜주기도 한다. 이러한 에너지를 술 먹는데 낭비해서는 안 된다.”

—기성세대는 가치관과 정체성이 잘 정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외수는 누구인가?

이 시대의 작가 이외수는 1946년 8월 경남 함양군에서 태어났다. 그 후 그는 강원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다. 춘천교대를 중퇴한 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견습 어린이들』이 당선되었다. 그 후 산에 들어가 3년 동안 문장공부를 한 후 중편 『훈장』으로 세대신인문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하지만 그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세대신인문학상을 수상한지 3년이 지나고 장편 『꿈꾸는 식물』을 출판한 후이다. 그는 『꿈꾸는 식물』로 당시 최고의 평론가인 김현에게 극찬을 받게 된다.

그 후 이외수는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한 작품을 창작한다. 그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아름다움의 추구이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예술을 힘입을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그의 작품을 지지하는 고정 독자층은 40만 명이 넘는다.

그는 1972년 『견습 어린이들』로 신춘문예에 당선된 후 뛰어난 문장력과 내용을 가진 소설, 시집, 에세이 등 총 22권이 넘는 책을 출간하였다.

또한 그는 대학생 때 가졌던 화가의 꿈을 간직하며 전시회도 종종 열고 있으며, 시화집이나 에세이에 자신이 손수 그린 그림을 넣기도 한다.

그는 1998년에 연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세상과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다. 또한 그는 라디오DJ 활동, TV프로그램 출연 등도 하고 있다. 세상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요즘에도 그는 창작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비가 와도 계속 된다 2009 대동제

획일화된 프로그램은 아쉬워

지난 5월 20일~22일까지 대동제가 열렸다. 이번 대동제는 '놀랍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대동제'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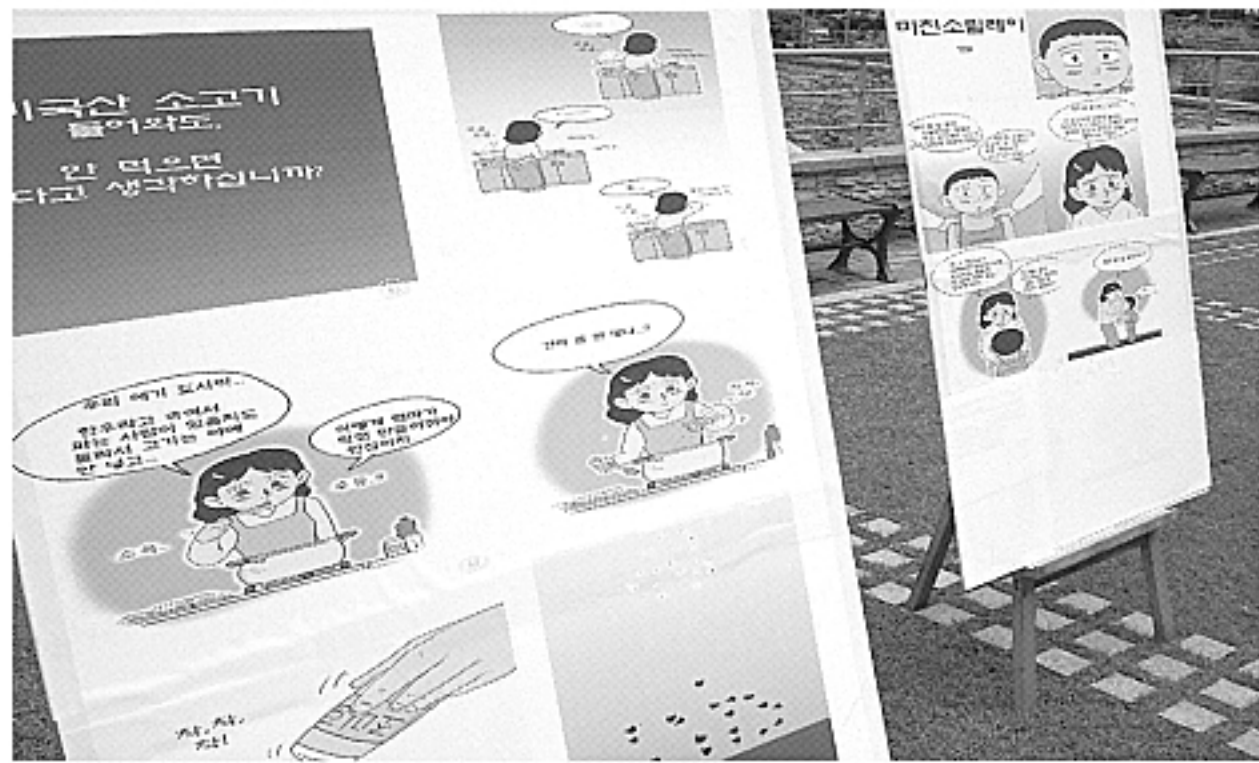
축제 첫째 날에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대회와 파티·과기 경연대회, 방송제 등이 열렸다.

둘째 날에는 비가 내려, 약간의 프로그램 변동이 있었다. 원래 계획되었던 한국어문화부와 지식정보학부의 문선공연이 셋째 날로 옮겨졌다. 하지만 한음, 탈패의 동아리 공연과 장기자랑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조성기(미술 4) 대동제 기획단장은 "둘째 날에는 비가 와서 학교 천막을 각 과에 하나씩 분배했다"고 말했다. 대동제 마지막 날에는 황산악, NOD, TRIAX의 동아리와 초청가수의 공연이 열렸다.

대동제의 프로그램은 매년 기본적으로 낙산가요제, 동아리공연, 방송제 등의 프로그램이 열린다. 부가적으로 추가되는 프로그램은 몇 개에 그친다.

이에 대해 기획단장은 "중앙무대가 설치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 작년 대동제 때 열린 광우병 사진전

대회도 시연회를 진행하면서 준비한 것이다. 또한 처음처럼 이벤트는 타 대학에서 진행된 공연을 알아본 후 호응이 좋다고 하여 진행한 것이다."며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조성기 대동제 기획단장은 "2년 전에 대동제 운영단으로 활동했는데, 그때 동아리에

게 주어진 시간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번 축제 때 동아리 공연에 많은 시간을 배분했지만 동아리들의 참여도가 다소 낮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동제 마지막 날 공연 예정이었던 한검회의 검도시범 공연은 취소되었다. 한검

회 측에서 연습부족을 이유로 공연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둘째 날 열릴 계획이었던 들불의 공연 역시 열리지 않았다. 둘째 날 비가 왔기 때문에 대동제 마지막 날로 공연 날짜를 옮기려고 했지만, 들불의 거부로 공연이 취소되었다.

이번 대동제가 작년에 열렸던 대동제와 다른 점은 사회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것이다. 작년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광우병에 대한 사진전을 개최하고 의료인영화에 대한 영화 '식코' 방영, 광우병 끝판별 등 사회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기획단장은 "사회문제, 사회문제 하시는데 솔직히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여 "작년 대동제 때 진행된 사회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잘 모르지만, 호응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축제 때 즐길 수 있는 것을 많이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임선희 기자 sunny@hansung.ac.kr

이모저모 살펴 본 2박 3일 '대동제'

대동제 무대행사는 과기·과기 경연대회로 시작했다. 이번 과기·과기 경연대회에서는 총 15개의 학과가 참여해, 각 과의 홍보와 함께 다양한 장기자랑을 선보였다. 이번 과기·과기 경연대회에서는 무역학과가 1등을 차지했고, 2등은 부동산학과, 3등은 영어영문학과가 했다.

이영민(무역 3) 학생회장은 "1학년 학생들이 고생한만큼 좋은 성과가 있어서 기쁘다"며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우승했는데 앞으로 3연패, 4연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과기·과기 경연대회가 끝난 뒤에는 낙산가요제가 열렸다. 낙산가요제에서는 예

심을 거친 8개 팀이 공연을 했다. 낙산가요제의 심사위원은 서동성, 장종오 작곡가가 맡았다.

이번 낙산가요제에서는 명지대학교 '주리랑' 팀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주리랑팀은 군대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여자와, 여자친구를 남겨 두고 입대한 남자의 마음을 담은 'waiting for you'라는 곡을 선보였다.

대상을 수상한 후에는 정주택 총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정주택 총장은 "남은 축제 기간동안 평소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말했다. 첫째 날 마지막 무대 행사는 방송제의 초청가수 운

하가 무대를 장식했다.

대동제 마지막 날에는 문선단 공연이 있던 후 처음처럼 댄스팀이 나와 공연을 했다. 이 공연에서 처음처럼 댄스팀은 소주병 모양의 옷을 입고 공연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웃음을 주었다. 또한 '가위바위보 게임'을 진행해 최후의 1인에게는 PMP를 상품으로 주었다.

동아리의 공연이 있던 뒤에는 초청가수 다이나믹 듀오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기타 행사로는 과일 이벤트와 바자회 행사 열렸다.

학생 식당 앞에서 진행된 과일 행사 이벤트는 학우들에게 바구니에 바나나와 수박

을 담아 학우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운동장에서는 바자회 행사가 열렸다. 바자회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의류나 생활용품 등 기증받아 50~80%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이번 바자회를 준비한 채규남(구제군 회맹나무) 팀장은 "지금은 대학 축제 시즌이라 여러대학을 돌면서 바자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바자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남은 수익금은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kmh77@hansung.ac.kr
박현진 기자 phellan@hansung.ac.kr

빗속에도 식지 않는 학우들의 열정

지난 5월 21일, 예대가 주최한 '한성 장기자랑'이 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장기자랑은 비가 오는 곳엔 날씨 속에서 치러졌다. 당일 오후 5시 30분으로 예정된 '09년 한성 장기자랑'은 우천 탓에 공연이 지연되어 6시가 넘어야 시작되었다.

첫 공연은 박성주 외 9명의 무용과 학생들의 댄스로 문을 열었다. 그들은 무대가 비에 젖어서 미끄러운데도 흥겨운 무대를 이끌었다. 그들은 직접 편집한 곡에 맞춰 춤을 추며, 학우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이어서 무대에 올라온 권순혁 외 1명은 카니발의 거구의 꿈을, 노주희(패디) 학생은 자유림의 팬아를 열창했다. 조그만 실수는 있었지만, 객석에 있는 학우들은 참가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장기자랑을 보러온 학우들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우비를 입고, 우산을 든 채 공연을 즐겼다. 그들은 운동장에 마련된 객석이 흠뻑 젖어 어지러운데도 개의치 않고 자리를 지켰다.

곱아지는 빗줄기 속에 갑자기 트로트곡이 무대에서 터져 나왔다. 음악과 함께 김보경 외 8명의 학우로 이루어진 댄스 팀이 뭉뚱배지, 밭밭모자 등 코믹한 복장으로

무대에 나타났다. 그들은 역동적인 인무로 관객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었다.

위경복(멀티) 학우는 가수 비의 노래에 맞춰 댄스 메들리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무대에는 참가자가 비에 젖지 않도록 천막을 설치해 놔는데, 위경복 학우는 무대 앞까지 나와서 춤을 추는 등, 관객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0선글라스를 낀 채 공연을 펼친 그는 학우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채 'Rainism'을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내려왔다.

노래와 댄스 일체인 장기자랑에, 이수현(경제) 학우는 요요라는 이색적인 장기를 자랑했다. 그는 무대에 각종 요요를 들고 올라와 객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틀리파' 등의 음악에 맞춰 다양한 묘기를 선보였다.

14개 팀이 참가한 이번 장기자랑은 등수 발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1등은 위경복 학우, 2등은 박성주 외 9명, 3등은 임혜찬 외 1명에게 돌아갔다.

반지혜(한국어문1) 학우는 "비도 오고, 공연 내내 우산을 들고 있는 것도 힘들었다. 그래도 다들 열심히 준비한 만큼 결과도 좋아 기쁘다"라며 소감을 말했다.

이종재 기자 dogiluve@hansung.ac.kr

이번 대동제에는 '절주' 합시다

지난 18일~22일에 미래관 앞에서 '건전한 문화 정착'을 화두로 한 절주 캠페인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학생지원팀과 함께 성북구 보건소에서 후원하였다. 매일 오전 11시~오후 6시까지 이어진 이번 행사는 알코올에 관한 OX 퀴즈와 가상 음주체험, 음주측정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알코올 OX 퀴즈에서는 '술과 약을 함께 먹어도 되는가?' 등의 간단한 질문을 주고 정답을 맞추면 핸드폰 액정 크리너 상품을 제공했다. 가상 음주체험은 특수 제작된 인형을 착용하고 설치물을 걷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체험은 술에 만취한 상황을 실감나게 느끼게 하여 학우들에게 폭음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또한 절주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했고 주량을 얼마만큼 줄일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행운권 추첨을 통해 대동제 마지막 날 경품을 증정했다.

또한 성북경찰서의 협조로 대동제 기간 중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자유로운 대학교 축제기간 중 '절주'가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에 권후관(총무인사팀) 팀원은 "작년에 음주로 인한 오토티비 사고가 있었다. 때문에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를 예방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절주캠페인은 우리학교 외에 고려대, 국민대, 동덕여대, 서경대, 성신여대 등 성북구 소재 6개 대학교에서 진행



▲ 절주 캠페인 행사 모습

했다. 각 학교마다 절주 동아리가 있어 절주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 컴퓨터공학과에 절주 소모임이 있어 이번 절주캠페인 행사를 계획했다.

절주소모임 회장 이승현(컴공3) 학우는 "대학생들의 폭음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잘못된 대학생들의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소모임을 계획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 학교에서는 아예 술을 끊자는 것이 아니라 자제자하는 의미로 이번 대동제 때 절주캠페인을 진행한 것이다."며 절주캠페인을 기획한 취지를 밝혔다.

절주소모임은 현재 컴퓨터공학과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2학기 중 홍보를 거쳐 하나의 동아리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이성이 기자 sangmi@hansung.ac.kr

학우들의 끼를 뽐낸 동아리 공연

대동제 기간 동안 교내 각 동아리들은 다채로운 행사를 벌였다. 이 행사를 통해 각 동아리 회원들은 자신들이 가진 끼를 맘껏 드러냈다.

JOY 선교회는 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학우들이 가져오면 다른 책으로 교환해주는 '1:1 책나눔행사'를 열었다. JOY 선교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김세미(영어영문 3) 학우는 "기독교 관련 책보다 소설이나 수필, 에세이 등 문학관련 책이 많이 들어오고 나갔으며, 전공 책도 많이 가져갔다"고 말했다.

학술동아리 샘들은 제1회 한성인 퀴즈대회를 개최해 입상자 3명에게 각각 문화상품권을 증정했고, 입상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

도 문화상품권 5,000원권을 증정했다. 샘들의 총무인 강지윤(행정 4) 학우는 "기존의 학술동아리가 가진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초청강연 대신 퀴즈대회를 열게 되었다. 특히 역사문화학과와 부동산학과와의 참여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사진 동아리 P.I.G는 제11회 P.I.G 신인사진전을 열어 회원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전시했다. 신인사진전은 P.I.G의 2학년 회원들만이 참가하는 사진전이다. 이 사진전은 비가 내렸던 21일을 제외한 20일과 22일 양일간 우촌관 앞 잔디밭에서 열렸다.

만화 동아리 매나니로는 다양한 일러스트를 전시하고, 부스를 열어 팬시나 핀버튼을

학우들에게 판매했다. 매나니로 회원인 전용환(역사 2)학우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동아리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바람을 비쳤다.

이 밖에도 축구 동아리 베팅은 미니 축구 게임을 진행했고, 영어회화 동아리 H-LEP은 잔디관 뒤에 부스를 마련해 학우들에게 동아리 홍보와 함께 초코파이 1분안에 2개 먹기,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을 했다.

락밴드 동아리 왕산악은 20일 한성대학교 방송국이 주최한 낙산가요제에 출전하여 그들이 창작한 'Cure me myself'라는 곡을 선보였다. 이후 22일에는 Kelly Clarkson의 'Because of You'와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를 열창했다.

댄스 동아리 NOD는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박병&2NE1의 'Lollipop'에 맞춰 멋진 댄스로 무대를 장식했고, 하우스댄스나 힙합댄스를 추가도 했다. TRIAX는 흑인음악 동아리답게 'Sexy lady' 등의 랩을 선보였다.

실내악과 동아리 HYCO는 22일 미래관 카페테리아 앞에서 '미뉴에트, 가보트, 가브리엘의 오보에' 등 여러 악곡을 연주했다.

이 밖에도 클래식 기타 동아리 한음과 풍물동아리 탈패는 21일 동아리 공연을 선보였다.

이하나 기자 babychou@hansung.ac.kr

당신의 열정을 담은 뜨거운 여름

앞으로 남은 대학생살을, 앞으로 10년 뒤 내 모습을 상상하며

주어진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건 어떨까요?



- ① TRIAX의 공연모습
- ② 구세군 바자회를 둘러보고 있는 성북구민
- ③ 의패 소모임 '판탈'이 직접 만든 의류와 악세서리를 학우들에게 판매하는 모습
- ④ 지식정보학부의 과기·과티 경연대회 모습
- ⑤ 다이나믹 듀오의 공연모습
- ⑥ 외국인 교수들의 모습
- ⑦ 처음처럼의 행사 모습
- ⑧ 동아리 JOY의 책 교환 이벤트 모습
- ⑨ 처음처럼 댄스팀의 댄스무대
- ⑩ 동아리 탈패의 사물놀이 공연
- ⑪ 무대공연을 지켜보는 학우들의 모습
- ⑫ 못박기 이벤트 모습
- ⑬ 한국어문학부의 문선공연